



이 번호를 기억하세요... 총선 선거운동 첫날 정당별 열띤 홍보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인천 중·동·강화·옹진 선거구 각 정당 선거운동원들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 여야 후보 3인 지지도 대흔전

4·13 총선 D-12 **항상제+110**  
**인천 부평갑**

국민의당 문병호 '초박빙' 우세 속  
당선가능성은 새누리 정유섭 앞서

인천 부평갑 선거구는 여야 후보들 간 혼전(混戰)이 펼쳐지고 있다. 지지율에서는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초박빙의 우위를 지켰지만 당선 가능성에서는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기호일보와 경기일보가 4·13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

치'에 의뢰해 지난 30일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RDD)·스마트폰 앱 등의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관련 기사 3면>

문병호 후보는 '후보 지지도'에서 17.6%로 17.0%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를 0.6%p 앞서는 초박빙 승부를 펼쳤다. 이를 뒤쫓는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는 16.5%로 1위 문병호 후보와의 격차는 1.1%p에 불과했다. 여야 누구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혼전이다. 무소속 조진형 후보는 5.1%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이 묻는 질문에는 새누리 정유섭 후보가 20.5%로 앞섰으며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는 16.9%로 뒤를 이었다. 더민주이 후보

는 14.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역시 이들 세 후보가 6.1%p의 오차범위 내 승부를 펼치고 있다. 무소속 조 후보는 4.2%를 얻는 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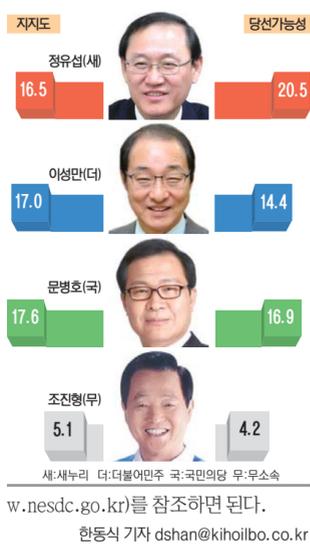
지지정당은 새누리 27.5%, 더민주 19.9%, 국민의당 13.9%, 정의당 4.9% 순으로 나타났으며 야권의 지지도도 더하면 38.7%에 달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임의결기(RDD) 방식에 따른 전화면접(80%)과 앱(20%) 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2016년 2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이 밖에 상세한 조사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

기호일보 경기일보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

후보 지지도·당선가능성 <단위: %>



알림

### 인천의 선택, 4·13 총선 후보자 토론회

인천 13개 선거구의 주민 대표를 뽑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기호일보·인천일보·경기방송·iFM·NIB 남인천방송·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의 선택, 4·13 총선 후보자 토론회'를 엽니다. 인천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될 토론회에 유권자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인천의 선택, 4·13 총선 후보자 토론회-인천의 미래를 투표합니다

- 일시/장소 : 4월 1일~2일 / NIB 남인천방송 4·13 총선 특집 공개홀
- 토론회 대상 선거구 : 인천 남갑·을, 연수갑·을 총선 입후보자
- 지면 게재·방송일자 : 4월 4일~7일 나흘간
- 문의 : 4·13 총선 인천 대표 신문·방송 선거취재팀 ☎032-761-0002

기호일보사

## 여당세+현역 프리미엄 압도적

평택을

유의동, 지지도·당선가능성 강세  
새누리 '정당 선호도'까지도 우위

현역 국회의원 3선 시장 출신,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의 전 의원이 맞붙은 평택을 선거구에서 '후보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 '지지정당' 등 모든 부분에서 여당이 강세를 보였다.

기호일보·경기일보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9일 평택

을 선거구의 만 19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RDD)·스마트폰 앱 등의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보 지지도'에서 새누리 유의동 후보가 32.2%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김진기 후보(20.5%)와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9.6%)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3면>

새누리 유 후보는 현역 의원이며, 더민주 김 후보는 3선 평택시장 출신이다.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는 현대자동차,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대표를 지낸 현대맨으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는 0.3%의 지

지를 얻었다. 다만 '잘 모름·없다'란 답변이 37.4%에 달해 선거 막판 '야권 단일화 여부'와 '부동층 표심'이 승부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지지 여부를 떠나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새누리 유 후보의 독주가 이어졌다. 유 후보의 당선을 응답자 38.4%가 점쳤고 더민주 김 후보는 17.4%, 국민의당 이 후보 4.0%, 민중연합당 김 후보 0.7%가 당선을 내다봤다. 하지만 당선 가능성에서도 '잘 모름'이라고 한 응답자는 39.5%에 달했다. <2면에 계속>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박광석 기자 ksp@kihoilbo.co.kr

후보 지지도·당선가능성 <단위: %>



### 인천터미널 개발부지 교통영향평가 부결

롯데쇼핑 측 지하차도 개설 미반영 시 "위원 8명 소위 구성해 재심"

인천터미널 부지(7만8천288㎡) 복합시설 개발을 위해 롯데쇼핑(이하 롯데)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이하 교통)가 부결됐다. 해당 부지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입점해 있으며, 롯데가 2013년 인천시로 부터 매입했다. 시는 최근 롯데 측에서 제시한 교통을 심의한 결과 '보완 재심'으로 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심의에 참석한 8명의 위원들은 롯데 측에서 제시한 교통에 대해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갖고 재심의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롯데가 개발하기로 한 건축물이 기존보다 2.3배가 확장되는데, 이에 상응하는 교통개선시설 확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했다.

롯데가 계획한 건축물이 들어서면 이곳의 주말 유입 차량은 기존 2만4천561대에서 3만2천620대로 늘어 5만7천136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주변은 심각한 교통 체증에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시는 앞서 해당 지역에 지하차도 개설을 롯데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롯데는 이번 교통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롯데는 인근 도로 지하층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시설물'과 '하천 압거 시설' 때문에 지하차도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하차도를 만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길이 600m의 지하차도가 이들 지장물 때문에 총 1.4km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롯데가 가져온 교통영향평가가 검토해 재심의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습니다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꼭 투표하세요!

스마트한 유권자! 후보자토론회의 본방사수

선거구	토론회 시간	방송 채널
중구동구 강화군용진구	4월5일(화) 21:00~23:00	OBS경인TV
남구갑·을	4월6일(수) 갑:10:00~13:00 을:14:00~17:00	남인천방송
연수구갑·을	4월7일(목) 갑:10:00~13:00 을:14:00~17:00	남인천방송
남동구갑·을	4월7일(목) 갑:21:00~23:00 을:10:30~12:30	티브로드 인천방송
부평구갑·을	4월7일(목) 갑:19:00~21:00 을:22:00~24:00	CJ헬로비전 북인천방송
계양구갑·을	4월7일(목) 갑:10:00~12:00 을:14:00~16:00	CJ헬로비전 북인천방송
서구갑·을	4월6일(수) 갑:21:00~23:00 을:10:30~12:30	티브로드 인천방송

사전투표: 4월 8일(금)~9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를 방문하시거나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송도發 GTX 건설 상반기 결론 짓는다

### 인천~청량리 노선 재검토 용역 국토부 "6월까지 마무리" 밝혀 시, 삼성역 잇는 대안노선 추진

인천 송도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 열쇠를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상반기안으로 개발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31일 "GTX B노선(인천~청량리)은 타당성 확보를 위한

재기획 용역 중"이라며 "오는 6월께 용역 결과가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송도에서 청량리까지는 기존 방안이 비용편익비(B/C) 0.33에 그쳐 보류했다. 통상 B/C값 1이 넘어야 사업성이 있어 추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지역 정가, 국토부 안팎에선 송도~청량리가 아닌 강남으로 우회하는 대안 노선을 마련했고, 이 방안이 잠정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당초 삼성역에서 더 나아가

와 국토부 반대로 다시 재검토가 이뤄졌다.

청량리를 거쳐 강북권으로 진출하는 것이 도심 발전에 도움을 주고, 현재 GTX A노선 및 대다수 광역교통망이 강남권을 경유하는 등 강남에 편중된 것이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청량리가 아닌 삼성역으로 가는 제2의 대안노선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인천시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당초 삼성역에서 더 나아가

잠실역까지 노선을 연장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송도발 GTX노선이 삼성역까지 연결되면 향후 수서역과 광주역·원주역을 거쳐 강릉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송도~청량리를 잇는 GTX B노선이 원칙"이라면서 "서울도심 교통 혼잡 및 강남·강북의 균형발전, 인천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노선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jlh@khihoilbo.co.kr



인천시는 31일 중국 웨이하이시에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열고 현지 설명회를 가졌다.

## 중 웨이하이에 인천 의료관광 거점 마련

### 안내센터 열고 현지 설명회

중국 웨이하이(威海)시에 인천의 의료관광을 안내하는 의료관광 안내센터가 문을 열었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건국호텔에서 인천 의료관광 안내센터 개소식 및 인천

의료관광 설명회가 진행됐다.

시는 이날 개소식과 함께 웨이하이시 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보건 분야 상호 교류와 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중국 내 의료관광 정보 공유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인천의료관광 안내센터는 지난

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선정된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와 인천관광공사, 인천의료관광 실무협의회 소속 의료기관이 협업체 의료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현지 거점 사무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hihoilbo.co.kr

## 송도 8공구 A1부지 팔렸다

### 센토피아 주택조합과 계약 재정난 인천시 한시름 놓아

애물단지로 남아 있던 송도국제도시 8공구 A1부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인천시가 한시름을 놓게 됐다. 인천시는 31일 센토피아 송담하우징(주)과 매매대금 4천620억 원에 송도 8공구 A1부지(송도동 308-1, 18만여㎡)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송도 A1부지는 지난 2012년 9월

시가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토지리전 방식으로 매각했다가 지난해 9월 한화투자증권 측에 또다시 리전 방식으로 재매각한 부지로, 9월 리전 도래 시기까지 매각이 안되면 R1부지와 함께 6천300억 원의 우발부채를 시가 떠안아야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센토피아 송담하우징(주)이 30일까지 진행된 지역주택조합원 1차 모집에서 전체 가구수의 약 75%를 모집해 매매계약이 이뤄지게 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hihoilbo.co.kr



인천시, 규제프리미의 날 첫 가동 인천시가 생활속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프리미의 날'을 가동했다. 시는 31일 옹진군청에서 첫번째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적용 배제'와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등의 규제 안건들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시와 옹진군은 토론해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와 규제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인천시 제공>

## 교통 취약지역 해법은 '콜버스'

### 대중교통 서비스 미흡 송도·청라·영종도 등 인발연, 운행전략 제시

인천의 교통 취약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일명 '콜버스'라 불리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RT는 콜택시처럼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는 버스를 말한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 취약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전략 및 추진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를 31일 발표했다.

인천 내 교통 취약지역은 송

도·청라국제도시, 검단2·3동, 계양1동, 강화, 영종도 자연마을, 영종도 등이 대표적이다.

주로 출퇴근 시간대 일시적으로 버스 공급 확대가 필요한 신도지 지역이나 노선버스 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교외지역 등이다.

교통 취약지역 대중교통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운행 횟수나 경로 등 탄력적인 버스운영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 꼽혔다. 이에 따라 한중화 인발연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은 인천의 도시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인천형 DRT' 도입을 제안했다.

송도·청라·영종 및 논현·한화·서항 등 대중교통 서비스 공

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기 이용권 버스형태의 수익형 DRT사업 추진을, 농어촌 벽지노선 및 도시 교외지역에 대해서는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회통합형 DRT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특히 '예약'과 '공유'를 기반으로 한 DRT의 통합적 사업모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도시내 대중교통 이용 불편지역을 대상으로 한 DRT 통합사업모델을 도입해 지역 내 교통취약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hihoilbo.co.kr

## 개항장 역사지구, 문화 소통공간으로

근대개항장 역사문화지구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진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구 인천아트플랫폼 일대 광장을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인천아트플랫폼이 국내외 예술가들의 대표적 작업 공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개항장 일대 야외 광장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소통의 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인천역과 동인천역 주변은 '인천 개항장조도시 재생사업'으로 대규모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때문에 시는 두 역 사이에 있는 인천아트플랫폼 일대를 문화예

술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찾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6월 개관 예정인 중구 생활문화센터를 1일부터 임시 운영해 미술공방, 마주점 공간, 동아리쉼터, 북카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어 5월부터는 '밤빛거리 축제'와 '아트마켓'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밤빛거리 축제에는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비롯해 체험형 게임 체험, 만국 야시장, 수레마켓, 버스킹 공연, 공예작품 전시 및 판매 등 각종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마련되고, 아트마켓에서는 동네 박람회와 개항장 마켓, 길거리 공연 등이 진행된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hihoilbo.co.kr

## 재능대, 수도권 취업률 1위 해외서도 60명 구직 성공

최근 3년 동안 수도권 취업률 1위를 달성한 인천재능대가 해외 취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국내외 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30일 인천재능대에 따르면 방학 기간 중 9개 학과 100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짧게는 4주, 길게는 9주간 하와이·호주·홍콩·중국 등으로 취업연계 해외 현장실습을 실시했으며, 그 중 60명(60%)이 해외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유탉 기자 cyt@khihoilbo.co.kr

## 평택을, 여당 현역 압도적

### <1면에서>

후보 간 대결과는 달리 '정당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도 새누리당이 우위를 점했다.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9.0%로 1위를 차지했고 더민주 19.4%, 국민의당 7.6%, 정의당 3.1%, 기타정당은 0.7%의 지지를 얻었다. '지지정당 없다'는 의견도 30.2%에 달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이다. 전화면접조사 RDD·임의전화걸기(80%)와 스마트폰 앱 조사(20%)를 병행했다. 응답률은 13.3%였다. 2016년 2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자세한 조사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The 62nd GYEONGGIDO SPORTS FESTIVAL  
POCHEON 2016

2016  
4.28(목)~4.30(토) / 3일간  
포천종합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

개회식 2016. 4. 30(목) 포천종합운동장  
주최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주관 포천시, 포천시체육회  
후원 경기도교육청, 포천교육지원청

김홍기의 기호만평

# 쫓겨진 야권 지지층... 여야후보 3파전 '예측 불허'

## 4·13 총선 여론조사

### 인천 부평갑

난형난제(難兄難弟)다.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 나선 여야 후보들의 초반빙 승부를 나타낸 말이다. 부평갑은 전통적으로 야권 우세지역으로 국민의당 장담의 일등공신이자 안철수 공동대표의 최측근인 문병호 후보와 인천시의회 의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가 앞서고, 인천해양수산청장 출신의 정유섭 후보가 뒤를 쫓는 3자 대결이 예상됐던 지역이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더민주의 야권분열로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의 어부지리도 예측되는 등 승자를 가릴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 # 투표 여부

4·13총선에 투표하겠다는 질문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62.2%로 가급적 투표하겠다는 응답 17.0%를 더하면 79.2%의 투표율이 예상된다. 이미 여론조사가 진행된 중·동·강화·옹진과 서울보다는 낮은 예상 투표율이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층은 남

정유섭·이성만·문병호 '박빙' 뚜렷한 선두주자 없이 혼전 무소속 조진형은 뒤로 밀려나 부동층 43.8% 표심공략 관건

성(62.7%)과 여성(61.7%)이 비슷한 의사를 보였으며 연령층은 50대(72.1%), 60대 이상(76.5%)에서 높게 나왔다.

#### # 투표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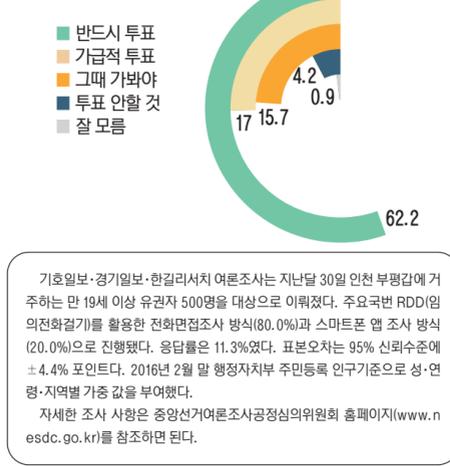
부평갑 유권자들은 투표 기준으로 후보의 '능력이나 평판(31.8%)'과 '공약이나 정책(30.1%)' 모두 중요시했으며 소속정당을 보는 비율도 22.2%에 달했다. '인물이나 평판'은 50대(36.3%)에서, '공약이나 정책'은 20대(45.8%)에서 중요시했다.

#### # 후보 지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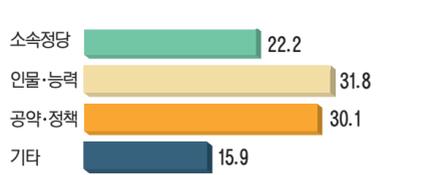
지도도에서는 야권인 문 후보와 이 후보의 초반빙 승부 속에 여권의 정 후보가 포함되며 혼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당 문 후보는 17.6%의 지지율로 17.0%를 얻은 이 후보를 0.6%p 차이로 앞섰으며 새누리당 정 후보는 16.5%로 문 후보와는 1.1%p, 이 후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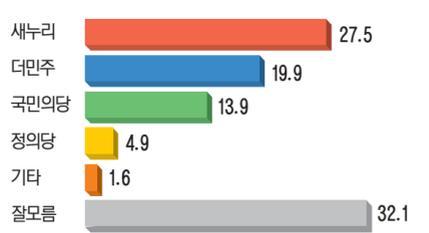
#### Q1. 총선 투표의사는?



#### Q2. 투표 기준을 꼽는다면?



#### Q3. 지지정당은?



는 0.5%p의 박빙승부를 보였다.

무소속 조 후보는 5.1%로 선두권에 서 멀어지는 분위기다. 잘모름 또는 지지후보가 없다는 부동층의 응답은 무려 43.8%에 달해 이들의 투표 향배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 # 당선 가능성

부평갑 유권자들은 정유섭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다. 하지만 문 후보와 이 후보의 지지도 만만치 않다.

정 후보는 20.5%로, 16.9%를 얻은 문 후보와 14.4%를 얻은 이 후보를 각각 3.6%p와 6.1%p차이로 앞섰다. 조 후보는 4.2%의 지지를 받았다.

연령별로는 정 후보가 50대(24.4%)에서, 문 후보도 50대(27.3%)에서, 이 후보는 30대(22.8%), 조 후보는 30대

(7.0%)의 지지를 얻었다.

지역별로는 정 후보가 2선거구(부평 2·3·6동, 산곡3동, 심정1·2동, 일산동)에서 23.5%, 문 후보는 1선거구(부평 1·4·5동, 부개1동, 산곡4동)에서 18.6%, 이 후보도 1선거구에서 15.7%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조 후보는 2선거구에서 5.7%의 지지를 얻었다.

#### # 지지 정당

지지 정당은 새누리당이 27.5%, 더민주 19.9%, 국민의당 13.9%, 정의당 4.9% 순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은 60대 이상(51.2%)에서, 더민주 30대(29.0%)에서, 국민의당은 40대(20.0%), 정의당은 30대(10.6%)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한동식 기자 dshan@khihoilbo.co.kr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인천 중동강화옹진 선거구에 출마한 배준영 새누리당 후보, 김희창 국민의당 후보, 조택상 정의당 후보, 안상수 무소속 후보(왼쪽 위부터 시계방향)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만규 기자 cmg@khihoilbo.co.kr

## '표심 잡아라' 후보자들 발에 땀

4·13 총선 후보들이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13일간의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인천지역 4·13 총선 출마자들은 이날 각 선거구에서 지지자들과 출정식을 갖고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나 전철역 주변에서 지지자 다수의 선거운동원들과 한 표를 호소했다.

새누리당 이학재(사갑) 후보는 오전 8시에 신원동 서경백화점 사거리에서 '20대 총선 출정식'을 진행했다.

큰절로 출정식을 시작한 이 후보는 "이번 총선에 서구가 과거로 돌아갈 것이지, 미래로 전진할 것 인지가 달려 있다"며 "서구 발전의 핵심 사업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기호 1번 이학재를 3선 의원으로 꼭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출정식을 마치고 서경백화점에서 가좌동까지 자전거 유세를 진행했으며, 가좌시장과 거북시장, 중앙시장 등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남동갑) 후보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논현동 홈플러스 앞 사거리에서 선거 필승 출정식을 열었다.

###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이학재·박남춘 출정식 열고 선거운동원들과 한 표 호소 최원식 '계양갑 연합' 계획 윤상현 지역발전 비전 제시

출정식은 선거운동원을 비롯한 지지자 100여 명의 응원 속에 울동과 지원연설로 마련됐다.

박 후보는 "항상 성원하고 격려해 준 구민들에게 더 큰 정치, 더 바른 정치로 보답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며 "진정으로 구민과 함께 땀 흘리고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출정식에는 더민주와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정의당에서 배진교 전남동구구청장이 지원유세에 나섰다. 국민의당 최원식(계양을) 후보 역시 입학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계양주민 속으로' 대장정을 시작했다.

최 후보는 "이번 선거는 나쁜 정치를 심판해 적절하고, 명분 없이

싸움질만 하는 정치 풍토를 바꾸는 선거"라며 "남은 13일간 제 몸과 영혼이 태어나 자라는 계양 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계양주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계양갑에 출마한 같은 당 이수봉 후보와의 연합 선거운동을 실시해 '계양갑 연합벨트'를 공고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무소속 윤상현(남을) 후보도 이날 학익사거리에서 지지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선 출정식을 갖고 13일간의 열전 레이스에 돌입했다.

윤 후보는 "오직 남구만 생각하며 열심히 뛰어왔으며 국민안전보훈병원 유치와 제물포역 급행열차 정차, 인하대 부근 인천발 KTX사업 추진, 정부행정합동청사 유치, 각급 학교 급식시설 예산 확보 등은 남구 주민과 저의 맘으로 일궈낸 성과"라며 "겸손과 열정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남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각 후보들은 본 선거 기간인 오는 12일까지 선거유세차량과 선거운동원들을 활용해 본격적인 거리 유세를 진행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hihoilbo.co.kr

MY PORTABLE PORTFOLIO

감각적인 디자인과 환상적인 속도의 만남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세련된 포터블 SSD를 경험해 보세요!

삼성 포터블 SSD

FAST 외장 HDD 대비 약 3배 이상 빠른 속도, 내장형 SSD만큼 빠른 응답 속도 (자사실용치, 실제 사용 환경과 다를 수 있음)  
SAFE 강화된 암호 체계로 보안성 업그레이드, 외장 HDD 대비 충격 안전성 강화  
STYLISH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휴대가 간편한 콤팩트 사이즈 (71.0 x 9.2 x 53.2mm, 최대 30g)

SAMSUNG

# 행정·경영 전문가가 시정 끌어야 vs 관료 출신 더는 안 돼

## 4·13 재보선 현장

### 양주시장

4·13 총선과 함께 양주시는 현상식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시장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한 시장 선거에 출마한 흥남표 전 경기도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도의원(제2선거구) 보궐선거도 치러진다. 양주시장 선거는 전통적으로 여당이 우세로 꼽혔지만 고을·육정신도시 조성 과 면지역의 도시화로 인구 유입이 늘어 나면서 정치색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정성호 후보가 큰 표차로 새누리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반면, 2014년 치러진



정동환(새누리) 이성호(더민주) 이항원(무소속) 새누리당 정동환 후보는 장흥면 출신으로 1974년 공직을 시작해 총무국장 등 요직을 거친 행정 통이다. 3대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8월 이사장을 퇴임하고 새누리당에 입당, 다른 예비 후보들보다 인지도가 떨어질 것인바 예상을 깨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정 후보는 “행정과 경영의 전문가가 시정을 이끌어야 한다”며 모든 역량을 양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경제시장

정동환- 모든 역량 경제 살리기에 집중... 행복한 양주시 건설  
이성호- 지난 선거 석패 '절치부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박차  
이항원- 경선불복 새누리 탈당... 도의원 경력 부각시켜 차별화

으로 경제통·교통통·교육통·행정복지통·문화관광통 등 5통의 원칙을 실천해 잘사는 양주, 행복한 양주를 만들겠다며 준비된 양주시정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현상식 전 시장과 대결한 더민주 이성호 후보는 1980년 양주에서 공직을 시작해 산업환경·교육문화복지국장 등을 지냈으며 대전대에서 도시설계 박사학위를 받은 정동 기술관료 출신이다.

2014년 명퇴 뒤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해 정성호 국회의원 정책특보단장,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거쳐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섰다가 석패, 2년간 절치부심의 시간을 보내며 설욕을 베풀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 '상생 발전 양주시', 복지 관련 시설 건립 및 지원 등 '더불어 양주시', 특화된 복합생활체육센터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따뜻하고 검증된 인물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두 공직자 출신에 맞서 도의원 출신인 이항원 후보는 새누리당을 탈당, 추천인 400여 명을 확보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 후보는 공무원 출신인 현상식 전 시장이 불명예 퇴직한 상황에서 다시 공무원 출신이 선택되면 양주시의

미래는 암울해진다며 지방자치 행정 역량을 갖춘 도의원 출신을 시민대표로 뽑아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양주시장 재선거는 불명예 퇴임한 전 시장이 공무원 출신이란 점에서 관료 출신에 대한 반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더민주로 옷을 갈아입은 이종호 전 시의회 의장과 임경식 부의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흥남표 도의원의 양주시장 도전에 따른 사퇴로 양주2선거구(양주1·2·백·장흥·광직) 도의원 보궐선거는 새누리당 정창범(54·전 양주시의회 의장)후보와 더민주 박재만(53·양주시축구협회장)가 맞대결을 펼친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hihoilbo.co.kr

## 총선 레이스 열전 현장

### 이학재 “경제 발목 잡는 야당 심판해야”

인천 서갑의 새누리당 이학재(사진) 후보는 31일 신원동 서경백화점 사거리에서 총선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이번 총선에 서구가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미래로 전진할 것인지가 달려 있는 만큼 우리 경제를 발목잡는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최근 들어 다시 꿈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hihoilbo.co.kr

틀대기 시작한 서구발전의 핵심 사업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호 1번 이학재를 3선 의원으로 꼭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학재 후보의 공식 선거 로고송 '픽미(PICK ME)' 뮤직비디오 한 장면. <사진=이학재 선거사무소 제공>



송영길 후보의 유세차인 '황소카'를 위한 유세현장 곳곳을 누비는 모습. <사진=송영길 선거사무소 제공>



문병호 후보가 자신과 꼭 닮은 인형과 함께 유세현장 곳곳을 누비는 모습. <사진=문병호 선거사무소 제공>

### 안생준 “임기 중 의원세비 전액 기부할 것”

인천 서갑에 출마하는 무소속 안생준(사진) 후보는 선거운동 첫 날인 31일 서구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안 후보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최고의 서구,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당선 되면 최우선 실천사항으로 4년 임



기동안의국회의원세비를구민복지정책에전액기부하겠다”고 밝혔다. 5대서구의원을역임한안후보는 현재 시영운수주 대표와 재인 서구청청향우회 고문을 맡고 있다. 한동식 기자 dshan@khihoilbo.co.kr

기동안의국회의원세비를구민복지정책에전액기부하겠다”고 밝혔다. 5대서구의원을역임한안후보는 현재 시영운수주 대표와 재인 서구청청향우회 고문을 맡고 있다.



### 이성만 “반드시 더불어 성장 이룩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54·부평갑) 후보가 31일 인천 부평대로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앞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가졌다. <사진> 이날 출정식에는 송영길·홍영표 후보와 정의당 김응호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지지자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후보는 “이번 총선의 3대 핵

심 의제는 새누리당 경제실정 심판,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회복, 10년간 침체된 부평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라며 “오직 주민만 믿고 부평발전을 위해 부평에서 성장한 이성만이 책임지고 더불어 성장을 이룩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종국 기자 kij@khihoilbo.co.kr

### 박수영, 도청 신청사 부지서 총선승리 다짐

수원정에 출마한 새누리당 박수영(사진) 후보는 31일 본격적인 선거운동 첫날, 광고 경기도 신청사 부지를 찾아 총선승리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현장을 찾은 박 후보는 “신청사 이전문제는 경기지사가 5년 바뀌는 20년 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년 이상 삼 한번 뜨지 못한 경기도 신청사의 펜스를 걷어낸 장본인”이라며 “박수영이 시작한 경기도청 신청사, 박



수영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역 구석구석을 발로 뛰면서 이번 선거에 반드시 승리해 방치된 12년 야당도시, 이제 박수영이 바꾸겠다”며 “늘 그래왔듯, 치열하되 따뜻하게 영동주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hihoilbo.co.kr

## 인천지역 톱 톱 튀는 선거운동 유권자 뇌리에 쏙쏙

### 선거 로고송 뮤직비디오 제작 황소카 타고 닳은꼴 인형까지 재밌고 친근한 유세 활동 눈길

4·13 총선이 본격화되면서 후보들의 이색 선거운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선거유세에서 후보자들의 춤과 노래는 기본이다. 유권자들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 방영 중인 인기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포스터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누가 더 튀는지 경쟁이라도 하듯 캐릭터나 교복 등 독특한 복장을 하거나 거리 청소를 하고 배낭을 맨 채 걸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각양각색의 유세활동에 나서고 있다. 인천지역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이학재(51·서갑) 후보는 당의 공식 로고송인 '픽미(PICK ME)'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지역의 젊은 유권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로고송을 자신이 공약에 맞게 개사하고 직접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것이다. 특히 지역의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3·계양을) 후보는 별명인 '황소'를 선거 마케팅에 활용, '황소카'를 타고 선거운동에 나섰다. 유세차 전면에 황소의 눈과 귀, 뿔을 달고 후면에는 꼬리까지 설치해 유쾌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

이동할 때는 황소 울음소리가 나도록 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였다. 국민의당 문병호(56·부평갑) 후보는 자신과 꼭 닮은 인형과 함께 유세현장 곳곳을 누비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인형과 함께 유세차량에 올라 유권자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치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 등 즐거움을 주고 있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정지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톱 톱 튀는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특히 후보자 이미지와 꼭 맞는 컨셉트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일 경우 시민들에게 후보자를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어 이색선거 운동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사진=문병호 선거사무소 제공>



###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배준영 지원 사격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이 4·13 총선에 나선 새누리당 배준영(중·동·강화·옹진)후보를 지원하고 나섰다. <사진> 배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인 노 의장은 31일 동인천남광장에서 열린 배 후보 총선출정식에서 지지연설을 통해 “나라 걱정뿐인 박 대통령이 나머지 임기인 2년간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려면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둬야 한

## 시간도 해법도 부족... 도내 야권 단일화 '답보'

### 박영구도 많아 당락에 결정적 '더민주서 후보 먼저 정리해야' 국민의당·정의당 모두 시큰둥 시민단체들도 나서 연대 호소

경기도내 후보 차원의 야권 단일화 움직임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수면아래서는 제1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야권 연대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연대가 이뤄지는 곳은 극소수다. 경기도는 전체 선거구 60곳 중 50여 곳에 달하는 지역에서 '1야당이' 구도가 형성된데다, 적은 득표율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박빙 지역이 많아 야권 단일화 여부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31일 여야에 따르면 도내에서 야권단일화가 이뤄진 곳은 사실상 안양 동안을 1곳에 그친다. 국민의

당 공천을 받은 박광진 후보는 후보 등록을 한 후 더민주 이정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수원병에 나섰던 국민의당 김창수 후보는 더민주 김영주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으나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군포갑·을의 더민주 이학영·김정우 후보, 안산상록갑·을, 안산단원갑·을, 수원을, 성남 중원 등에서도 국민의당 후보에게 잇따른 단일화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아직까지 단일화가 성사된 곳은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서울 상계동 수락산역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민주가 그렇게 (야권 단일화)바라다면 더민주 후보를 먼저 정리하는 게 순서”라며 연대 거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국민의당은 물론 정의당과 더민주의 후보 연대 가능성도 교착상태다. 도내 정의당 후보가 출마한 곳만도 13곳에 달한다.

앞서 더민주 정장선 선거대책본부장은 정의당 심상평 대표 지역구인 '고양갑'부터 단일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의당은 “대표의 지역구 문제를 볼모삼아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뛰고 있는 우리 당 후보들의 사퇴를 강요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시민단체도 새누리당의 '여부지리'를 우려, 도내 야권 후보 간 단일화를 호소하고 나섰다.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여성회·진보연대·YMCA·YWCA, 경기 민권연대·민예총 등 시민단체 10여 곳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압승하면 국민 생활이 파탄에 이르고 국가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현 상황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돼 야권은 이를 막기 위한 초당적 측면의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hihoilbo.co.kr

## 개인적 아픔보단 당이 먼저

### 더민주 낙천 예비 후보자들 '선당후사 유세단'으로 출격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경기도내 전 예비후보자들이 31일 '선당후사(先黨後私) 유세단'을 꾸리고 도내 후보 유세전 지원에 뛰어들었다. 유세단은 3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 정신으로 국민과 더불어 승리하겠다”며 “더민주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가장 필요한 곳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세단을 이끌 단장은 안양 만에 나섰지만 경선 기회를 얻지 못한 강덕구 전 경기도의회 의장이

맡았다. 또 유문중(수원을)·민병덕(안양 동안갑)·장덕천(부천 원미을) 등 총 12명의 전 예비후보가 단원으로 참여한다. 강 단장은 “우리는 잠시 멈춰서만 패배하지는 않았다. 사상 유례 없는 빚더미 정권, 실업자 정권에 다시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벼랑 끝 절망감을 딛고 이렇게 똘똘했다”며 “1차로 유세단원을 모집했고, 계속해서 유세단원을 늘려 당이 승리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전 예비후보도 “도내 후보들이 요청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무엇이든 지원할 것이고, 야권 후보 단일화에도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hihoilbo.co.kr

# 더 좋은 오산 vs 더 큰 정치 vs 오산 뉴디자인 '3色 슬로건'

## 후보공약 돋보기- 오산

제20대 총선에 나선 오산지역 후보들이 저마다의 차별화된 공약을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 이권재(52)후보는 '시민들에게 더 좋은 새로운 오산, 시민이 행복한 오산'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새로운 오산을 위해 생활권기준 경제영역 확대(용인·평택·화성 인접 일부 지역 편입 추진)와 가장산업단지 확장·상업시설 복합개발로 오산의 랜드마크 조성 등의 공약을 강조하



이권재(새누리) 안민석(더민주) 최웅수(국민의당)

고 있다. 또 교육정책으로 공문화를 통한 고교평준화 추진, 노인 재능기부 학습코디, 학업중단 예방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오산인재육성위원회 구성 및 인재육성센터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권재-생활권 지역 확대·고교평준화 추진 약속  
안민석-독산성 복원 등 역사문화관광벨트 구축  
최웅수-범죄예방디자인 도입 등 안전도시 매뉴얼

이밖에 오산-발안간 82면 국지도 확장, 광동지하차도 추진, 세교거점 시내·외 고속버스 환승센터 설치 등의 교통정책과 공설운동장 이전·종합스포츠타운 신설, 오색시장 활성화, 오산 올레길 조성, 독산성 세마대 역사문화지구 조성, 고인돌박물관 건립 등의 문화공약도 내세우고 있다.

인 오산이 변두리 도시로 전략하느냐, 경기남부 중심도시로 꽃피울 것인가는 오산 국회의원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포부를 밝혔다.

안 후보는 여기에 오산경제 발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독산성 세마대 복원-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진, 죽미령 UN조전기념 평화공원 조성, 미니이치 테마공원 조성, 오산천 야생화 가든 추진, 오색시장 재정비 등 '역사문화관광벨트 5산 만들기'를 추가로 약속했다. 국민의당 최웅수(45)후보는 '오산시의 새로운 디자인'을 캐치프레이즈로 7대 핵심 공약을 발표한 상태다. 안심택시·안심버스 등 안심귀가 서

비스와 동행서비스 등 콘텐츠 개발, 도시범외배달디자인 도입, 안전한 공원 조성,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종합 매뉴얼 마련 등의 '안전도시 오산' 과제2 오산터미널 건립 추진, 도로망 구축 등의 '사통팔달 오산', 화성~용주사(옹근동)~독산성(세마대) 문화 및 관광벨트 구축의 '문화중심 오산'이다. 여기에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를 약속하는 희망복지, 오산역환승센터와 기존 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상생도시, 국비 확보를 위한 특별추진단 발족의 건전재정, 각계각층과의 친절한 대화를 정례화하는 소통수다가 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hihoilbo.co.kr

# 거리에서 민심 스킨십... 공약으로 표심공략 수원 후보들 "귀를 사로잡아라" 로고송 전쟁



심장수 새누리당 남양주갑 후보가 31일 마석사거리 등지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 호소하는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정동균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후보가 양평 역세권 300여 만㎡ 개발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자들 사진촬영을 했다.

## 남양주 사거리서 "지역발전 책임은 나요"

### 총선 레이스 열전현장

새누리당 심장수 남양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31일 새벽 총선캠페인 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첫 유세장인 마석사거리에서 심 후보는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해 정제돼 있는 시 발전과 변화를 이룩하겠다"며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장현사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12년 동안 아권만 국회의원을 하면서 남양주 발전을 정제했다"며 "철저한 지역중심의 선거인 만큼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 오직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10여 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8년 가까이 당협위원장직을 수행했다"며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남양주 발전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조현욱 기자 chj@khihoilbo.co.kr

## "양평역세권 개발 통해 인구 5만 명 유치"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여주·양평 후보가 '인구 17만 양평시 승격 및 자족도시 구축'의 일환으로 핵심 추가 공약 '양평중단지 프로젝트 1탄'의 포문을 열었다. 정 후보는 지난 25일 올해 개통 예정인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시대를 대비한 '여주역세권 종합개발' 추진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는 한편, 양평중상선 역세권 중단지 국·도비 지원 등 예산 확보를 통해 수도권 인구 5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정 후보는 "300여만㎡ 역세권 개발은 양수역 뒤편 저밀도 명품택지 조성하고 함께 국수권역 대규모 명품마을, 오빈역 일원 의무중대 이전 실버행복단지 유치, 양평역 양근권 관공골 도시재생사업, 용문역세권 대규모 도심재생사업 '지평역 인근 친환경 생태단지' 등 수도권 인구 5만 명을 유치할 수 있는 핵심 주거기반시설"이라며 "인구 유입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초석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양평=민부근 기자 bgmin@khihoilbo.co.kr

## 김용 "화성의 미래 책임질 책임자 가리자"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김용 후보가 31일 오후 5시 향남읍 향남호플리스 앞 소방서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출정식에는 오일웅 전 화성갑지역위원장도 함께해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한 김 후보는 "시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함께 소통하며 화성의 향후 10년, 20년을 설계·디자인해 더불어 사는 화성을 만들 계획"이라며 "갑질 정치, 권위주의 정치,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권력을 다시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바른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8선에 나선 서정원 후보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한다"며 누가 진짜 화성과 화성시민을 대변할 책임자인지 가릴 것을 촉구했다. 화성=조홍복 기자 hbj@kh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hihoilbo.co.kr

## 김태원 "희망 덕양 위한 15대 약속 실천"

4·13 총선 고양을 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김태원 후보가 '희망 덕양, 15대 실천 공약'을 발표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31일 행선동 햇빛마을 23단지 입구에서 출정식을 열고 "지난 8년 동안 말이 아닌 일로 보여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덕양

의 미래를 위해 뛰었다"며 "덕양구를 확실히 변화시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교통과 교육, 문화, 체육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경기도 대표 도시로 도약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희망 덕양 15대 실천 공약은 지난 8년간 주민들과 소통하며 꼼꼼히 기록한 결과"라며 "3선의 큰 일꾼이 돼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 이현재, 환경미화원 등 시민과 소통행보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새누리당 이현재(하남) 후보가 새벽 환경미화원 대기실 방문을 시작으로 황산 출근인사, 초등학교 교통봉사 등 시민과 소통하는 선거운동으로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지난 4년간 평소에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노력해 왔다"며 "자칫 이벤트식 선거운동은 시민들께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지난 4년간 해 왔던 것처럼 조용하고 차분하게 시민 한 분, 한 분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하남 발전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hihoilbo.co.kr

## 권철승 "이제는 바꾸자"영화관 앞 출정식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권철승 후보의 출정식이 31일 화성시 병점동 롯데시네마 앞에서 열렸다. 권 후보는 선대위 사무소에서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 후 출정식을 통해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출정식에는 오일웅 전 화성갑지역위원장, 강득구 전 경기도의회 의장, 이은주 도의원 후보를 비롯해 당원, 지지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권 후보는 "지난 8년 동안 새누리당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역사교과서가 그렇게 중요하다. 세월호 사건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화성=조홍복·박진철 기자

## 여야 유세현장 친근한 노래로 유권자 이목 픽미·붉은 노을·뿐이고 등 여러 버전 선포

4·13 총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수원 지역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귀를 사로잡기 위한 '로고송 전쟁'에 돌입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수원지역 곳곳의 유세 현장에서 머릿속을 쏙쏙 박히는 가사와 질리지 않는 흥겨운 리듬의 음악이 흘러나왔다. 각 후보들은 젊은 층은 물론 중년층, 장년층 모두에게 후보의 이름과 공약 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버전의 로고송을 선보였다.

수원정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은 후보가 준비한 로고송은 예능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대표곡 '픽미'다. 새누리당 중앙당이 젊은 층을 겨냥해 택한 곡이기도 하다.

박 후보 측은 중독성 강한 리듬과 나를 뺀아 달라는 뜻의 '픽미'의 의미 속에 "너와 나 더불어 사는 세상, 경제를 바꿔 줘요"란 개사로 본인의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어필했다.

이에 맞서는 새누리당 박수영 후보가 선택한 곡은 이문세의 '붉은 노을'이다. "살기 좋은 세상 기대하네, 경제 살리네 일 잘한다, 소문난 검증된 해결사" 등으로 개사해 행복한 수원을 강조했다.

수원갑에 출마한 더민주 이찬열 후보는 유권자들을 위로하는 테마로 곡을 개사했다. 연기자 겸 가수인 이동준의 '누나야'가 대표적이다. "때론 슬프고 때론 외롭게 살아가는 장안구민들, 삶에 지치고 힘든 세월이 그 마음을 내가 안다"는 내용으로 친밀감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새누리 박종희 후보는 향토가수 유진표의 히트곡 '천년지기'와 역시 향토가수 나영웅의 히트곡 '찍었어'를 개사한 로고송을 들고 나왔다.

이 밖에 수원을에선 새누리 김상민 후보가 '바다의 왕자'와 'YMCA', 더민주 백해련 후보는 '봄바스틱(검사와연 OST)'과 '무조건', '수원사람 수원사랑(창작곡)'으로 맞대결을 펼치고 있고, 수원병에선 '오빠 한 번 믿어봐'를 들고 나온 새누리 김용남 후보와 '나 생애 가면'을 '팔달에 가면'으로 개사한 더민주 김영진 후보의 로고송을 들을 수 있다.

수원부에선 새누리 정미경 후보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와 더민주 김진표 후보의 '뿐이고', '수원사람 수원사랑(창작곡)'이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수원정 유세 현장을 찾은 시민 최모(36)씨는 "거리 곳곳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와 본격적인 선거절이다 가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올해는 각종 예능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주 접했던 음악들이 후보별 맞춤 개사돼 흥겹게 따라 부르기 쉬운 것 같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hihoilbo.co.kr

## 평택지역 더민주 소속 시의원들 이계안 후보에 野 단일화 재촉

평택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 시의원들은 31일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를 향해 '평택을 선거구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최근 우리나라 각종 경제지표는 내리막길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용문제와 청년실업을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패권다툼과 정지권력 강화에만 여념이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들 의원들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분열된 야권이 아니라 강한 야권만이 독주를 견제하고 지역발전의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21일 평택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평택을 야권 후보자들에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전혀 진전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야권 단일화 효과는 쇠퇴할 것"이라며 "평택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에게 야권후보 단일화를 재촉한다"고 밝혔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h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hihoilbo.co.kr

## 신창현 '르네상스 과천 2020' 제시 문예·행정 등 3개 권역별 발전전략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신창현 후보는 31일 과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르네상스 과천 2020 프로젝트'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신 후보가 과천시지역 공약으로 제시한 '르네상스 과천 2020 프로젝트'는 과천시를 동부권·중부권·남부권 등 3대 권역으로 나눠 문화관광예술타운, 행정중심타운, 지식정보산업타운으로 집중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 후보는 "과천은 많은 문화관광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재정 기여에 보탬이 되지 않았다"며 "르네상스 과천 2020을 통해 아시아의 르네상스 도시, 명품 문예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의왕=윤승재 기자 ysj@khihoilbo.co.kr

진료 내용 암, 뇌, 심장, 관절·척추, 장기이식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CATHOLIC KWANGDONG UNIVERSITY INTERNATIONAL ST. MARY'S HOSPITAL  
149724-50249988  
인천 서구청 인근 대표전화 1600-8291

인천 최대의 중고차 판매단지  
간식 자동차 매매단지  
35개 상주 입주 · 자동차 인천 최대 보유  
(032) 872-0446

# 도내 중기 FTA 발판 中시장 뚫는다

### 2016 'G-FAIR 상하이' 참가 오는 22일까지 60개 사 모집 가정용품·실내장식 전시 연계 구매 의사 높은 바이어 참가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2016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상하이'에 참가할 60개 사를 오는 4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상하이(上海) 신국제전시장에서 8월 4~6일 사흘간 개최된다. 파견 기간은 8월 3~7일이다.

이 행사는 상하이 최대 박람회인 상하이 국제 가정용품&실내장식 박람회와 연계해 진행된다.

도와 중기센터가 운영하는 경기 통상사무소인 'GBC 상하이'(Gyeonggi Business Center)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제품 구매 의사가 높은 바이어들이 참가할 예정으로, 파견기업에 많은 수출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 G-FAIR 상하이에는 도내

본사 혹은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개최된 G-FAIR 상하이에서는 2천324개 바이어가 방문해 총 9천244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둔 바 있다.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 국제통상과(☎031-8008-4882) 또는 중기센터 수출팀(☎031-259-6134, 6139)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한편,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

출대상국으로 지난해 총 수출의 26%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말 타결된 한중 FTA로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이 확보돼 13억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어느 때보다 유리한 시기다.

G-FAIR가 개최되는 상하이는 중국 경제의 중심으로, 중국 소비 시장 규모의 36.3%를 차지하는 최대 소비도시이며 물동량 역시 중국 1위, 세계 3위인 지역으로 지난 16년간 중국 내 GDP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경제도시이다.

박광섭 기자 ksp@kohoilbo.co.kr

# 캠코 경기본부 내년 '새둥지' 수원 원천동 신사옥 건립 기공식 셋방살이 청산 이용객 불편 해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경기지역본부 31일 오전 11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67번지 일원에서 김용완 이사, 장성수 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옥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캠코 경기지역본부 신사옥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지하 1층·지상 4층에 총면적 3천835㎡ 규모로 지어진다.

신사옥이 건립되면 그동안 입차 사옥에 따른 환경 개선의 어려움으

로 불편을 겪었던 지역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완 이사는 "입차 사옥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내방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쳤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사옥 신축을 통해 그동안의 불편을 말끔히 해소하고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캠코는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

및 기업 구조조정 지원, 국민행복기금 운영 등 개인신용회복 지원, 국유재산 관리, 체납조세 정리 업무 등 국가경제와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이다.

특히 채무 조정, 바뀐드림론, 소액대출 등의 시민금융 지원 프로그램 및 국유재산 관리업무와 관련해 많은 지역민들이 경기지역 본부를 방문하고 있다.

박노훈 기자 nhp@kohoilbo.co.kr

## 삼성 SUHD TV '초밀도 화질' 직접 경험해보세요

### 전국 백화점서 체험존 운영

삼성전자는 오는 4월 27일까지 전국 주요 백화점에서 소비자 체험형 로드쇼인 '삼성 SUHD TV 퀴넨텀 초밀도 화질전'을 진행한다

화질전을 방문하는 고객은 전시장에 마련된 퀴넨텀 화질 비교존에

서 기존 TV 대비 더 풍성하고 디테일한 삼성 SUHD TV 화질을 확인할 수 있다.

360도 전시존에서는 화면 베젤이 보이지 않는 '베젤리스(Bezel-less) 디자인'과 TV 뒷면의 불필요한 부분을 모두 없애 360도 어디에서 봐도 아름다운 삼성 SUHD TV의 고급스런 디자인을 감상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미술관 리움과

협업해 사찰과 종묘, 궁궐, 성곽, 민가 등 한국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여주는 '한국건축예찬-땅의 깨달음' 전시회에서 상영한 고해상도 4K 영상도 생생하게 보여준다.

로드쇼 기간 백화점을 방문해 SUHD TV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매장별로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심연규 기자 sims@kohoilbo.co.kr

## 경기지역 곳곳 분양 소식

# SK하이닉스 배후수요에 교육·교통환경 우수

### ■ 이전 신원 아침도시

요즘 통근시간을 줄여여가시간을 늘리려는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산업단지 등의 업무시설과 주거지가 가까이 있는 '직주근접' 단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인근의 아파트 시세도 상승하고 있다.

3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인천시 SK하이닉스 인근에 위치한 '성우 오스타 2단지'는 분양가 2억7천416만 원(2010년 2월 입주)에서 현재 3억5천만 원으로 7천500만 원가량 상승하며 산단 인근 아파트의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이전 신원아침도시'는 대월면 사동리 402번지 부발생활권에 있으며 지하 2층·지상 15층 8개 동, 450가구 규모다. 전용 59~84㎡ 중 소형으로 구성돼 있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택 선정 조건 중 하나인 학주근접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내 어린이집과 1분 거



리, 사동초등학교와 3분 거리로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위치한 SK하이닉스는 1만3천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공장 99만㎡ 증설로 인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배후수요는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성남~여주 복선전철과 함께 이전에 '전철인 시대'도 열린다. 서울 강남까지 30~40분대 진입이 가능해 SK하이닉

스 증설과 함께 인구 유입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인근 부발역에서 강남역까지 38분 만에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택~원주, 부발~문경까지 이어지는 중부내륙전철의 환승역이 될 예정이어서 사통팔달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아파트 분양 일정은 오는 4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청약, 7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양 문의:☎1522-4849 인천-신원백 기자 syb@kohoilbo.co.kr

# 단지 내에 테마공원·학교... 캠핑까지 즐긴다

### ■ 남양주 라온 프라이빗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우수한 교육 여건과 풍부한 생활인프라, 문화시설까지 갖춘 대단지 아파트 '남양주 라온 프라이빗'이 1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

대한토지신탁이 시행하고 라온종합건설이 시공하는 '남양주 라온 프라이빗'은 전용 59~84㎡ 총 2천1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다. 전 가구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16번지 일원에 위치한 '남양주 라온 프라이빗'은 지하 1층·지상 25층 29개 동 규모로 ▶전용 59㎡ 759가구 ▶66㎡ 137가구 ▶72㎡ 715가구 ▶80㎡ 97가구 ▶84㎡ 505가구로 구성된다.

'남양주 라온 프라이빗'은 서울~춘천고속도로 화도나들목을 통해 잠실역 20분대에 접근 가능한 편리한 교통 여건을 자랑한다. 또한 2천1가구 규모의 대단지에 걸맞은 수준 높은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며, 일부 가구에는 테라스형과 스



튜디오 특화 설계를 도입하는 등 인근 지역에서 보기 드문 고품격 주거 프리미엄을 실현할 계획이다.

'남양주 라온 프라이빗'은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한다. 서울~춘천고속도로 화도나들목, 수석~호평고속도로가 단지와 인접해 서울과 수도권, 춘천 등 전국 어디로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안팎으로 녹지공간이 풍부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단지 내 캠핑데크와 대형 테마공원이 조성돼 입주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더해 줄 전망이다. 단지 내 어린이집(예정)을 비롯해 공립유치원(예정), 초

등학교(예정)가 위치해 자녀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보장한다.

'남양주 라온 프라이빗'은 인근 아파트에서 찾아보기 힘든 4베이 구조 설계가 적용돼 보다 넓은 공간 활용은 물론 탁월한 개방성과 채광, 통풍도 가능하다. 특히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팬트리 제공으로 입주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남양주 라온 프라이빗' 견본주택은 구리시 인창동 316-49번지(구리역 인근)에 위치하며, 입주는 2019년 1월 예정이다. 분양 문의:☎1600-0767 남양주-조현재 기자 chj@kohoilbo.co.kr

# 올 목표는 10억5000만 달러, 농식품 수출 출발 순조

### 2월 실적 지난해比 30%↑

또 전통적으로 수출 강세 품목인 인삼제품, 채소종자, 조미김은 중국과 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화훼류와 축산물은 전

년보다 각각 41%, 20% 수출이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 3천700만 달러, 일본 2천700만 달러, 미국 2천500만 달러, 타이완 900만 달러 순이다. 특히 중국 시장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2월보다 40% 증가했다.

도는 지난 8일 열린 도쿄식품박람회(Foodex Japan 2016)를 시작으로 상반기 9개의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수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세계경기 둔화와 환율 변동 등으로 대외 여건이 어렵지만 수출포장재 지원사업, 수출단지 시설개선 사업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경나눔 기자 hero43k@kohoilbo.co.kr

경기도가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액을 10억5천만 달러로 세운 가운데 연초부터 농산물 수출이 급증, 조기 목표 달성에 예상된다.

31일 도에 따르면 2월 기준 경기도 농식품 수출액은 1억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수출 상위 품목은 비스킷, 음료, 라면, 맥주,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이 전체의 49%로 주를 이뤘다.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 2016 희귀·난치병 어린이 돕기 걷기대회

일시 2016년 4월 30일(토) 09:30 장소 인천대공원 야외극장

### 1부 걷기코스 (10:00 ~ 12:00)



### 2부 나눔콘서트 (12:00 ~ 13:00)

▶마마무, 홍진영, 장미여관, HIGH4, 블레이디(총 5팀)

참가비 | 1만원 / 1인(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동)

참가기념품 | 대회기념품, 번호표, 봉사활동확인서 4시간 발급 ※봉사활동 시간은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연동처리 됩니다.

참가방법 | 홈페이지 www.redcross.or.kr/walkingday\_incheon/walkingday.do

참고사항 | 참가비 부금은 희귀·난치병 어린이 의료비로 전액 사용됩니다. 두들, 행사장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홍보대사 | 오연서

희망폰차 문의전화 032-815-5015~8

주최 |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 |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협력 | 21세기병원, 기호일보, 인하대학교 사회봉사단 및 건원홍보대사 추진위원회 | 인천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교통방송, THE 블루시티, 디딤푸드, 서영산업, 흥익푸드, 정성현 추진단장 후원 | 인천광역시, RCY위원회, 나사렛국제병원,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외복지공동모금회, YG-1, ㈜선광, 파티파라나, 인천지구청년회의소, 송도스퍼스타즈, 오마이카, 정라정영외과, 제임스푸드, 정도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경신유엔엘

# 굿몰, 영종 복합쇼핑몰 개발지 땅값 널까 말까

### 최종 납부기한 넘겨... 인천도시공, 토지대금 납부계획서 요청 굿몰 “대금 준비된 상태... 카지노 사업 불확실성에 추진 고심”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주변에 복합쇼핑몰을 추진 중인 부동산개발업체 ‘굿몰’이 3월 말까지 내기로 한 땅값을 치르지 못했다.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와 계약을 맺은 사업지 땅값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굿몰은 공사가 계약을 해지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1일 공사에 따르면 굿몰은 지난해 6월 미단시티내 총 5만5천571㎡ 규모(공사 소유)의 터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굿몰은 해당 부지에 쇼핑몰과 의료관광 복합 시설 및 체류형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굿몰 측은 공사에 납부

해야 할 부지 매입 금액 402억 원 중 계약금 40억 원 외에는 현재까지 나머지 금액을 내지 않고 있다. 잔금은 362억 원으로 1차 중도금 납부 기한을 넘긴 지 3개월째다. 이 때문에 굿몰이 3월 말까지 물어야 하는 연체료(연 14.8%)는 1억8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9일 굿몰 측에 ‘3차 독촉장’을 보내면서 부지대금 납부를 요구했다. 당시 공사는 “중도금 납부를 계속 거부하

면 계약 해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보했다.

굿몰 측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이하 교통영)가 통과되는 시점에 맞춰 중도금과 잔금을 일시불로 납입할 것을 공사에 약속했다. 굿몰이 약속한 최종 납부기한은 3월 말까지이다. 그러나 굿몰은 교통영이 지난 24일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는데도 부지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공사는 마지막으로 굿몰 측에

‘토지대금 납부계획서’를 요청하기로 했다. 납부계획서 검토 후 부지 매입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최고경영진과 논의해 계약 해지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굿몰 관계자는 “(최근 LOCZ의 60% 지분이 있는 리모 측의)카지노 추진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부지대금은 모두 준비된 상태”라고 전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자 ajk@khihoilbo.co.kr



달콤아삭 파파야 멜론 등장 31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고령산 ‘파파야 멜론’을 소개하고 있다. 올해 처음 출하된 파파야 멜론은 부드러운 식감과 16-17브릭스의 고당도를 자랑한다. /연합뉴스

## 두산인프라코어 굴삭기 DX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특별상



두산인프라코어 DX시리즈 굴삭기(사진) 디자인으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6’에서 특별상(Honourable Mention)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09년 콘셉트(Concept) 굴삭기 CX로 최우수 디자인상을 수상한 이후 두 번째다. 글로벌 건설기계 업체 중 콘셉트와 양산제품 모두 레드닷 어워드 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DX시리즈는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디자인 콘셉트인 견고함, 강력함, 민첩함 등을 반영한 굴삭기 시리즈로, 제품 후면과 측

면에 역동성을 가미한 데칼 디자인이 적용됐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기존의 굴삭기 디자인이 수평적·정적이었던 것에 비해 역동성과 입체감을 살린 새로운 디자인으로 두산 브랜드의 당당함을 강조했다”며 “이번 수상으로 두산인프라코

어의 세계적인 디자인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두산인프라코어가 디자인을 개발한 ㈜두산 산업 차량BG의 지게차 ‘핑거 팁 컨트롤러(Fingertip Controller)’도 이번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 출품해 특별상을 받았다. 최윤희 기자 cyt@khihoilbo.co.kr

## 중 엔지에 ‘한국상품관’ 문 연다

### 인천 우수기업 제품 전시·판매 남동구-허릉그룹 등 방안 협의

중국 엔지(延吉)시에 인천 우수기업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한국상품관’이 들어선다. 인천시 남동구는 중국 허릉그룹, 엔지백화점 등과 백화점 내에 한국상품관을 꾸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엔지시내에 있는 엔지백화점은

연매출액 4천억 원, 종사자 수 6천 200여 명 규모의 중견 백화점이다.

허릉그룹과 엔지백화점 관계자들은 최근 남동구에 있는 모닝아트 등 우수 기업 6곳을 방문해 한국상품관 구성 문제를 상담했다.

구는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기업들이 중국 백화점에 입점하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판로 개척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자

## 인천 車부품업체 글로벌 수출길 ‘깜깜’

### 지역업체 82% “지원제도 있어도 잘 몰라” 통합창구 마련 요청 인발연 “해외협력선 개척 역부족... 市 경영노하우 지원확대를”

인천지역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수출 및 외국 기업과 전략적 제휴에 관한 시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인천발전연구원(이하 인발연)의 ‘인천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관내 101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중 82.3%(83개 사)가 정보 전달 미흡 등으로 수출 관련 지원제도를 이용조차 못했다.

이들 업체는 수출 관련 전자자금 지원과 해외시장 정보 제공, 수출전문가의 컨설팅 제공 등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반면 수출 지원에 대한 정보 전달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출 서비

스를 위한 ‘통합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략적 제휴의 경우 101개 업체 중 7.9%(8개 사)만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 확보와 해외 업체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조사 대상 기업 중 5개 사만이 중국·미국 등에서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자동차부품 업체가 국내 기업 간 과당경쟁을 피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협력선 개척에 있어 자체 능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인발연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가 자동차 대기업의 해외 진출에 인천 소재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할 수 있는 사업(안)을 기획하고, 중소기업이 외국 기업과 전략적으로 제휴할 수 있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인발연의 제안이다.

특히 지역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글로벌화가 저해되는 것은 업무능력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시가 경영 노하우 및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수출 관련 지원제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뿐더러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그 절차나 요건이 까다롭다”며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전담반을 꾸려 대처할 수는 있지만 영세한 업체들은 해외 진출은 엄두도 못 낸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에는 총 584개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산재해 있다.

김종국 기자 kjk@khihoilbo.co.kr

## 세계가 반할 기술 명장들 ‘인천 빛낸다’

### 市 ‘명장 네트워크’ 구축 홍보 영상·강연 등 추진

인천의 ‘기술명장’들이 새롭게 부각된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의 ‘대한민국 명장’ 19명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올해 상반기에 간담회 및 강연을 기획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장인으로 인천을 빛낸 지역 숙련기술인을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상영 중이다.

최근 열린 ‘2기 인천 가치재창조 공유를 위한 정책 워크숍’을 통해 인천의 문화·역사·인물적 가치를 토대로 한 관광자원의 스토리텔링 분야 중 ‘인천을 빛낸 대한민국 명장 네트워크 구

축’ 등 12건을 대표 과제로 선정해 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관련 예산을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명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계 등 22개 분야 96개 직종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야 한다. 1986년부터 매년 20명 내외의 명장이 선정돼 현재 전국에는 605명의 명장이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사후 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 장려금이나 기능대학의 교원 임용 자격, 산학겸임교사 자격 요건 등이 부여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격 요건이 부여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독일과 같은 제조업 강국의 비

결은 체계적인 숙련기술의 전수에 있다”며 “수십 명의 명장을 매년 배출하는 것보다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지금이라도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의 명장은 김옥봉(가구도장), 허인수(양장), 김호민(기계조립), 이선섭(자동차검사), 윤병훈(동축세공), 박연선(압연), 정해복(고분자제품제조), 채광은(화학취급), 김수봉(판금), 박병일(자동차정비), 가풍국(목재장호), 김용근(철도동력차전기정비), 송영배(자동차감사), 안장현(제과), 서정석(선상용기공), 원용기(사출금형), 이대근(금형), 홍기환(컴퓨터응용기공), 남기욱(배관) 등 총 19명이다.

김종국 기자 kjk@khihoilbo.co.kr

다시 찾아온 봄날, 청춘을 노래하다

# 세시봉

2016 세시봉 친구들 콘서트

2016. 5. 7(토) 오후 3시 / 7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특별게스트 **조정민**

우리들의 이야기 비의 나그네 **윤형주** | 달려와라 화계장터 **조영남** | 사랑하는 마음 같게 애아서 **김세환**

5.7 (토) 15:00/19:00 | VIP석 121,000원 | R석 99,000원 | S석 77,000원

주최 **기호일보** 주관 **문화의포** 제작 **SHOWPLUS+** 예매 **INTERPARK 티켓링크 YES24.COM** 문의 032)761-0007

동네방네

평택시 푸드트럭 운영자 공모

평택시가 푸드트럭 운영자를 공개모집한다.

평택시청사 1대, 차량등록사업소 1대, 이충레포츠공원 1대 등 모두 3대의 푸드트럭이 운영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 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접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1일까지 시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으로 본인 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h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hihoilbo.co.kr

의정부 행복학습센터 수강신청

의정부시는 근거리 학습권으로 이뤄지는 5개 권역별 행복학습센터에서 총 22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역 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마을 단위의 평생학습 공동체 형성을 위해 권역별로 행복학습센터를 지정했다. 지정된 학습센터는 귀라마을, 내일, 아래뜰, 시장동, 문예수 행복학습센터 등 총 5개다.

수강생은 오는 5일부터 방문 접수 및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828-8817) 또는 시 평생교육비전센터 홈페이지(ht tp://edu.ui4u.net)를 참고하면 된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양주 '한방힐링 육아교실' 운영

양주시보건소는 2016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한방힐링 육아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관내 영아들의 순조로운 성장과 건강관 신체 발달을 위해 2015년 10월 2일 이후 출생한 2~7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보건소 2층 나눔리방에서 실시된다.

교육 내용은 ▶영아 경혈마사지 ▶오감발달놀이 ▶한방영양양생법 ▶이유식 ▶모아 애착과 우울증 등 4주 구성되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신청은 4월 4일부터 선착순 전화 접수만 가능하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hihoilbo.co.kr

교통약자 이동지원 봉사자 모집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오는 4월 11일까지 화성나래 운전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만 26세 이상 60세 이하의 화성시민으로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등 기기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자원봉사 참여 신청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hsnrae0677@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4월부터는 동일한 목적지 또는 비슷한 경로의 이용객이 동승할 수 있는 동행률 및 경유료 제도를 시행해 이용객들의 편리성을 도울 계획이다. 화성=조홍복 기자 hbj@khihoilbo.co.kr  
백진철 기자 jch@khihoilbo.co.kr

시흥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위촉

시흥시의회회는 31일 의정실에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5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김영철 시의원, 재무·회계전문가 4명 등 총 5명이며, 이날부터 4월 19일까지 총 19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들은 당초 목적에 따라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됐는지, 예산집행에 있어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4월 27일까지 시장에게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hihoilbo.co.kr

도교육청, 2017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현 중3 학생 지원때 전 학년 내신성적 골고루 반영한다

마이스터고 탈락 후에도 특성하고 특별전형 도전 기회 일반고·자율형공립고, 학년별 20·30·50% 비율로 선발

올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2017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는 지난해처럼 전 학년 내신성적을 반영한다. 경기도교육청은 3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7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6학년도와 달라진 점은 특

성하고 특별전형의 기간을 마이스터고 전형 이후로 조정할 것이다. 이에 따라 마이스터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해도 특성하고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전학년도에는 특성하고 진로 적성 특별전형과 마이스터고 전형 일정이 같았으나 올해 마이스터고는 10월 24~27일, 특성

하고 특별전형은 11월 7~9일로 조정해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전형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이다. 특성하고는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구분해 선발하며, 고교 졸업 후 취업하려는 학생들을 위해 30% 이내였던 특별전형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선발 규모 등 구체적인 학교별 요강은 입학전형 3개월 전 공고한다.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 입학전형은 중학교 내신성적 200점(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으로 선발한다.

서울시는 2017학년도부터 중학교 2~3학년 내신성적만 반영하지만 경기도는 종전처럼 1~3학년 전 학년 내신성적을 반영한다. 자유학기제 시행 학년이 학교에 따라 다른데다, 학년별 내신성적 반영비율도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성하고의 경우 전형

일정 때문에 교과성적은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까지, 기타 교육활동 실적은 3학년 10월 말까지 반영한다.

특수목적고와 특성하고, 자율형사립고는 학교별 전형 방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도교육청은 2016학년도부터 자사고의 경우 1단계 전형에서 모집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용인외대부고는 지난해 모집정원의 20%에 해당하는 사

회통합전형 1단계 합격자를 추첨으로 뽑았다.

외국어고, 국제고는 지난해처럼 자기주도학습전형(1단계:영어 내신성적+출결, 2단계:1단계 성적+면접)으로 선발하되 교내외 각종 대회 수상실적이나 인증시험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는 반영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고교 입학전학포털(satp.g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연규 기자 sims@khihoilbo.co.kr



미세먼지 '기승' 마스크는 '불티'

수원 지역 유통점 '복사동' 최근 일주일간 매출 40%↑ 병원 방문환자 급격히 늘어

최근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상품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31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평균 70㎍으로 집계된 수원시의 지난주 미세먼지 농도는 이번 주 들어 평균 80㎍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 30일 오후 한때에는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242㎍까지 치솟는 등 미세먼지 '나쁨' 상태(81~150㎍ 수준)를 기록했다. 이는 약 250㎍ 정도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는 버스 정류장 및 읍연실의 미세먼지 농도와 비슷한 수치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미세먼지 관련 상품의 판매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 수원시에 위치한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는 마스크 등 미세먼지 관련 상품이 매장 곳곳에 진열돼 있었

다. 약국과 편의점, 드러그스토어(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 및 화장품·건강보조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 등지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한 고객이면 50여 개를 구매하기도 했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최근 일주일 동안 미세먼지 관련 54개 품목의 매출이 30~40%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었다. 수원지역 이비인후과와 한의원 등 호흡기질환 관련 병원 5곳을 확인한 결과, 이번 주 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는 지난주보다 평균 60~7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주 들어 대기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세먼지로 인해 단순 호흡기질환이 만성 기관지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실외 활동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건우 인턴기자 kkw@khihoilbo.co.kr

가평군 시설 현장 점검·CCTV 설치 등 '안전 대책' 발표

가평군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안전생태계 조성 추진 시책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유형상 안전재난과장이 지난 30일 군청 홍보실에서 밝힌 '재난에 강한 안전한 자연특별시 가평' 건설을 위한 주요 시책의 핵심은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와 미래성장, 상생 협력으로 압축된다.

먼저 불안전 요인을 추방해 안심가평을 이루기 위한 안전대진단이다. 올 2월 시작돼 4월 30일까지 실시되는 안전대진단은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등은 물론 법, 제도, 관행과 같은 소프트웨어와 안전관리가 취약한 번지점프, 캠핑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현장점검반·총괄기획반 등 4개

반을 구성, 19개 실·과·소가 참여해 급경사지, 대중이용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462곳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집라인, 번지점프, 캠핑장, 자전거도로 등에 대해서는 경찰, 소방, 경기도 이동안전점검단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 불안 요인으로 대두되는 강도·폭력·절도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등 4대 관련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은 물론 안전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세이프 그린도시(Safe Green City)사업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주민생활 안전 취약지역 39곳과 5곳의 안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4억 9천만 원이 투입돼 오는 6월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가평=엄정환 기자 gsum@khihoilbo.co.kr

킨텍스에서 국내 유일 '유통 전문전시회' 개최

9월 'K Shop 2016' 앞두고 맞춤·결합 등 핵심전략 발표 리테일 전문업체 150곳 참여

킨텍스가 야심차게 선보이는 국내 유일의 리테일 전문 전시회 및 콘퍼런스 'K Shop 2016'의 성공 개최와 미래 리테일을 위한 5가지 핵심 전략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31일 킨텍스에 따르면 'K Shop 2016'은 오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2전시장 10홀에서 '스마트 고객을 위한 미래 소매(Future Retail for Smart Customers)'란 주제로 150개 사에 1만 명에 달하

는 갤러리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특히 성공 개최와 미래 리테일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옴니채널(Omni-Channel) ▶마이크로모먼트(Micro Moments) ▶e딜리버리(eDelivery) ▶비즈니스 콜렉티브(Business Collectives) ▶노클릭 익스피리언스(No-Click Experience) 등 5대 전략을 선정해 발표했다.

옴니채널은 이미 유통업체가 3~4년 전부터 주목하고 있는 개념으로 여러 소포체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고객에게 동일한 경험 및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미래 리테일 운영 전략이다. 마이크로 모먼트는 구글 리테

일이 소개한 개념으로 결제 단계에서의 이탈, 유사 상품으로의 이동 등 짧은 순간에도 바뀌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빠르게 대응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리테일의 고객 전략이다.

e딜리버리의 경우 소포체널과 고객 선호 배송 형태의 다각화, 배송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리테일의 배송 전략으로 물류처리와 라스트마일 배송 혁신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리테일의 배송 전략이다.

이 밖에 비즈니스 콜렉티브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다른 분야의 업체가 협업

을 진행하는 것으로 각자의 전문성과 이용자 기반을 공유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 리테일의 상생 전략이며, 노클릭 익스피리언스는 고객의 취향과 기호에 맞는 제품을 선제적으로 제안함으로써 보다 간편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미래 리테일의 판매 전략이다.

이처럼 킨텍스는 다섯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를 행사기간 싱가포르엑스포와 공동 주최하는 'Last Mile Fulfillment Korea 2016(LMF Korea 2016)'에서 300여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파주교육청 '학교장터 활성화' 도내 최초로 업무협약 체결

파주교육지원청은 31일 경기도내 지역교육지원청 최초로 한국교육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학교장터)와 'S2B 이용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파주교육지원청은 학교 계약 업무 추진 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S2B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회계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업무 경감과 예산 절감이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파주교육지원청은 S2B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 내용을 파주 지역 학교에 알리고, 학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홍성기 교육장은 "정기적인 실적 관리를 통해 S2B 우수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선 청렴마일리지 등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이번 업

무협약을 계기로 학교의 청렴도 향상과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김준구 기자 kimjk@khihoilbo.co.kr

"정부 새 예산지침, 지방자치 역행" 이재명 성남시장 철회 촉구 "창의적 복지사업 제동 안돼"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앙정부의 '2017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대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자율권을 침해하는 보복성 예산"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31일 성남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

획안 작성지침(안)'을 의결했다.

문제는 지침에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누리과정 미연성 등 지자체 재정 운용 상황을 감안해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예산편성과 연계하겠다'고 밝히면서부

터다.

이에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헌법상 규정된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자 역행"이라며 "지방정부에 대한 협박에 가까운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앙정부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정책에 명백한 반대의

사를 표명하고, 특히 청년배당에 대해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이라며 온갖 악의적 표현을 동원해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잘하려는 지방정부는 격려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은 지키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무"라며 "지방정부의 창의적 복지사업은 발목잡고, 스스로의 책임은 저버리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침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이정철 기자 iproc@khihoilbo.co.kr

농촌 찾아 '먹거리 소중함' 학습

남양주 '학교 1농장' 호응 초등생 벼베기 등 체험기회

남양주농업기술센터가 매년 운영하는 '학교 1농장 교육과정 연계 학습'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초등학생들이 직접 농장·농촌을 찾아가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35곳 1천500명의 학생들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농촌을 느낄 수 있게 됐다.

교육은 농장으로 찾아가거나 농장주가 학교로 직접 찾아오는 방식으로 각각 진행된다.

농기센터는 배생태와 수확, 모내기과 벼베기, 딸기와 고구마 수확, 두부 만들기, 양갱 만들기, 숲 체험 등 지역별 특성을 적용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남양주농업기술센터가 지난해 진행한 '학교 1농장' 프로그램 현장.

남양주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학생들이 농업과 농촌을 피부로 느끼면서 '먹거

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hihoilbo.co.kr



안산시와 서울반도체가 규제 개혁을 통해 '원원효과'를 이뤘다. 31일 서울반도체 본사에서 제종길 안산시장 등 운송통로 설치공사 준공식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안산시, 규제완화+지역발전 '원원' 성공

### 서울반도체 운송통로 개설사업 시 규제 개혁 덕 '급물살' 4000명 고용 창출·7000억 투자 약속... 어제 준공식 가져

안산시와 서울반도체는 31일 원시동 서울반도체(주) 본사에서 운송통로 설치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공원으로 가로막혀 있던 서울반도체(주) 1공장과 2공장의 운송통로 개설은 지난 2006년 기업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이후 10년 만에 완료돼 이날 준공식을 갖게 됐다. 서울반도체(주)가 요청한 운송통로 개설은 2006년 이후 각종 규

제로 진척이 없었으나 2014년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보고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주관으로 진행돼 왔다. 그간 관련 법규 저촉 등으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으나 2015년 2월 규제개선추진단과 국토교통부, 안산시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시는 공원 일부 해제와 공원 점용을 동시에 시행하는 새로운 사업 추진 방안을 제안, 채택됐다. 이로써 운송통로 개설이 급물

살을 타게 됐으며, 10년간 풀리지 않던 규제의 족쇄가 풀리고 3개월 만에 행정절차가 완료돼 2015년 7월 운송통로 설치공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러한 규제 개선에 힘입어 서울반도체(주)는 2015년 9월 18일 4천 명의 일자리 창출과 7천억 원의 시설투자를 약속하는 투자·고용협약을 시와 체결한 이후 9월 30일 일에는 본사를 서울에서 안산으로 이전 완료했다. 서울반도체(주)이정훈 대표이사는 "연결도로 설치로 강화된 경쟁력을 발판 삼아 전 세계 LED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해 반드시 세계

LED기업의 비전을 달성하고 수출과 투자, 고용 확대에 앞장서는 창조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준공식에 참석한 제종길 시장은 "규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서울반도체(주)는 생산성 증가 및 경비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시는 세수 증대 및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돼 기업과 지자체가 윈-윈하는 교과서적인 모범 사례를 완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hihoilbo.co.kr

# 군포시 넓은 급수관 개량 지원

### 시 시민불편 해소 20억 투자 3개 아파트 단지 공사 진행

군포시가 약 20억 원을 투입, 5천여 가구가 사는 3개 아파트 단지의 공용부분 상수 급수관 개량 공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아파트들은 건설된 지 20년 이상 되고 급수관이 아연도 강관으로 제작된 곳으로 4월부터 차례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작년 말 공모를 진행해 지역 내 20년 이상 된 아파트 중 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아파트들(의무관리 대상)로부

터 신청서를 받았고, 지난 2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대상을 확정했다. 문연석 건축과장은 "녹슨 상수도관 때문에 불편을 겪는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 매년 재원을 마련, 공용부분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9~10월께 내년도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공모에 참여하려면 주거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단지이면서 자기부담금(20~70%) 능력을 입증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군포=박현규 기자 wkp@khihoilbo.co.kr

# 동네배너

### 광주시 청년뉴딜 취업 프로 운영

광주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뉴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시 일자리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구직을 희망하는 만 19~30세(군필자는 만32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오는 4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광주시청 7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취업 스킬,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이미지메이킹 등 개인별 일대일 상담과 참여자의 희망 직종 분석, 기업직무 분석을 통해 채용 동향을 파악하고 구직 능력을 향상시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한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hihoilbo.co.kr

# 하남 스피마스터 자격취득 수료식

하남시는 지난 30일 문화예술회관 제1강의실에서 '스피마스터 자격취득 과정 1차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식에는 훈련생 30명 중 취업 등 3명을 제외한 27명이 수료해 훈련생들의 높은 교육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료생들은 4월 초 스피마스터 자격 취득 검정시험에 도전하게 된다.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패션업체 등에서 고객에게 패션정보와 상품정보 제공 역할을 담당하는 패션 전문가로 성장하게 되며, 향후 개인 역량 강화를 통해 패션브랜드의 꽃인 스피마스터로 활동하게 된다. 스피마스터 교육은 하남시와 협약기관인 동원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며, 5월부터 2차 교육을 포함 5개 과정의 패션 전문교육이 진행된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hihoilbo.co.kr

# 포천시의회,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허가 관련 의혹 조사권 발동

포천시의회는 지난 3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15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하고, 31일까지 이틀간의 임시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영종면·신북면 이장단이 제기한 두산포천에너지(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시설 용량 변경 허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시의회의 조사권을 발동함은 물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5월 포천시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이 31일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정종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민생 현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노력해 시민이 수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이 힘써 주길 바란다"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hihoilbo.co.kr

# 광주시-경기수출협회, 5일부터 '수출상담학교' 문 활짝

광주시와 경기수출협회는 수출중소기업을 돕는 '수출상담학교'를 오는 5일부터 광주시기업인협회 사무실에서 진행한다. 수출상담학교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수출학교'와 전문 컨설턴트의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수출상담소'로 운영된다. 수출학교에서는 ▶무역실무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전략 ▶FTA 활용 및 지원제도 등 실무 중심으로 1일 4시간씩 8일간 진행되며, 강사들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무역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수출상담소에서는 수출 지원 및 무역 애로가 있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주 1

회씩 총 25회로 진행되며, 회당 2~3개 기업을 방문해 현장중심의 컨설팅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수출상담학교 과정을 통해 세계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대응 방안, 수출 여건 점검 및 대응책,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례중심·실무중심 강의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출상담학교 운영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경기수출협회) 031-259-6462 또는 광주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31-760-2913)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hihoilbo.co.kr

# 부천 역곡공원 도서관 명칭 공모

부천시는 역곡공원에 들어설 도서관의 명칭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비 39억 원을 들여 총면적 1천344㎡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이 도서관은 자료실, 멀티미디어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학습 및 문화공간을 포함하고 도서관 조경부지 내 북카페, 북스레 등 공원과 연계한 야외 독서공간도 만들어 2018년 개관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4월 15일까지 공감부천 홈페이지(http://create.bucheon.go.kr)에 올리면 된다. 명칭은 역곡도서관 건립추진위 1차 심사를 거친 명칭 후보안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시민 투표(5월 25~29일)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 도내 곳곳서 '우리 아이들 미래 가꾸기' 동참

## 내일 시흥시-서울대 사범대학 창의인재 육성 OT 개최

시흥시는 네트워크를 통한 창의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시흥교육지원청과 함께 추진해 온 '서울대 사범대학 창의인재 육성 멘토링 프로그램' 환경 오리엔테이션을 4월 2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서울대 사범대학 시흥시 창의인재 육성 멘토링 프로그램 책임교수(김서령) 및 조교를 비롯해 올해 멘토(서울대 사범대 학생)·멘티(시흥시 관내 중·고생)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서울대 창의인재 육성 멘토링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창

의멘토링과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과멘토링으로 이뤄진다. 이번 환경 오리엔테이션은 교과멘토링 대상 학생들로 개최되며, 창의멘토링 프로그램의 환경 오리엔테이션은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흥시-서울대 사범대학 창의인재 육성 멘토링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추진, 서울대 사범대학생인 멘토와 시흥시 초·중·고 학생인 멘티들의 교류를 활성화해 학업 및 진로 지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흥=이유철 기자 oclee@khihoilbo.co.kr

## 영어마을 파주캠프, 소외계층 학생 대상 방과 후 교실 운영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가 농어촌 소규모 학교 및 저소득층 자녀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도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영어 교육과정 제공을 목적으로 '주말 방과 후 영어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영어마을 인근 지역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1회(일요일) 3시간씩 운영할 계획이다. 수업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실용회화, 말하기의 정확성 및 문장 표현력 증진을 위한 기본 문법, 다채롭고 흥미로운 실내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참가 학생들은

전액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다. 김정진 경기영어마을 총장은 "원어민 강사와 함께 하는 체계적이고 심화된 영어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보급을 통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소외계층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사업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8억 원의 무료 영어교육 지원금을 파주영어마을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약 1만2천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파주=김준우 기자 kimjk@khihoilbo.co.kr

**인천대교 · 아라뱃길의 아경과 함께하는 불꽃축제와 맛있는 뷔페식 디너**

멋진 선상공연과 환상적인 불꽃축제로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 운영일시 : 매주 토, 일요일 정기운행, 12월은 송년크루즈 매일운행, 단체행사 (150명 이상) 요청시 매일 운행가능

◆ 정구시간 : 매주 토요일 19:30~21:30 (인천 연인부두) / 매주 일요일 18:30~20:30 (아라감포어객터미널)

◆ 포함사항 : 1.5~2시간 아경크루즈, 뷔페식저녁식사, 크루즈식 선상공연(마술, 변검, 댄스), 음악불꽃축제(토, 일요일 정기행사)

구분	대인	소인
불꽃크루즈	40,000원	25,000원
디너크루즈	75,000원	50,000원

※ 출항시 및 시간에 따라 요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불 / 꽃 / 축 / 제** : 불꽃의 생생한 감동

**선 / 상 / 공 / 연** : 마술, 변검, 댄스, 라이브 공연

**뷔 / 페 / 식 / 디 / 너** : 참치카빙, 스테이크 제공

Hyundai 현대유람선 032)882-5555

**보청기! 수춘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프리미엄 상담 및 조절을 받아보세요.

**“보청기 지원금” 대폭인상**

보청기 보조금 혜택이 **거준 34만원에서**

**최대 131만원** 지원 (청각장애복지카드 소지자)

**벨톤 오리진2(보장구 지원 전용 모델)**

4개월 프리미엄 보청기를 부담없이 구입하세요!

정상가격 190만원 → **보장구 환급 적용시 131만원** (자기부담금 131,000원)

- 차상위 청각장애인 분들은 현재 131만원 전액지원
- 일반 청각장애인 분들은 자기부담금 131,000원 발생
- 기초생활수급 청각장애인 분들은 2016년 1월부터 전액지원

보청기 지원금 관련 자세한 상담은 ▶ **1661-0411** 예약/상담 [www.beltonepro.com](http://www.beltonepro.com)

청능사 조현 대표/원장 **조현난청연구소**

인천 NO.1 벨톤보청기 인천공식센터  
인천시청역5번출구 · 인천시교육청 정문앞 · 21세기병원 옆

금요일 특집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 실행위원장

몽골의 식목주간

황사(黃砂)란 바람에 의해 하늘 높이 올라간 미세한 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 또는 떨어지는 모래나 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용어는 1954년 기상청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기 174년 신라 아달라왕 때 '흙가루가 비처럼 내린다'고 해 우토(雨土) 또는 토우(土雨)로 삼국사기에 기록됐다.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는 황사 현상에 대해 주로 토우(土雨)라고 기록했다. 북한에서는 '흙비' 또는 '비흙'이라고도 한다. 세계 각지의 사막에서도 황사와 비슷한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파키스탄 카라친의 Andhi,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근교인 아랄해와 카스피해에서 발생하는 모래폭풍(Dust storm), 사하라사막에서 겨울에 발생하는 모래폭풍(Saharan dust), 미국 중앙지역에서 봄철에 발생하는 Dust bowl 등도

황사와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황사의 영어 표현은 Asian dust, Yellow sand 또는 Aeolian dust라고 하며 중국에서는 DSS(Dust and Sand Storm. 砂塵暴. 모래먼지폭풍)로 간략히 쓰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Yellow sand 혹은 일본식 독음인 KOSA(高砂, 높은 곳의 모래)라고 쓴다. 전 세계가 사막화의 확산 그늘에 직면하고 있다. 사막화는 황사 발생의 대표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사막화는 벌목이나 강우량의 변화, 지구온난화 등의 요인들에 의해서도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17%, 세계 육지면적의 약 20% 정도가 이 영향권 안에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연간 약 6만km<sup>2</sup> 이상의 토지가 사막화에 의해 소실되고 있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2년마다 총회를 개최하며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이끌어 가고 있다. 전 국토가 사막화되고 있는 몽골은 정부 나름의

정책을 펴고 있다. 1996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에 가입하고 1996년에는 자연환경보호 프로그램, 2003년에는 사막화방지국가사업을 정부령으로 통과시켜 사막화 방지대책의 방향과 방법을 확정했다. 몽골 정부는 사막화 방지를 위해 조림사업을 우선으로 산림 관리, 종자 파종, 해충 제거, 우물 굴착과 광산지의 복원, 도벌 감시, 벌목에 대한 벌금 상향 조정 등을 해 왔다. 더불어 2005년부터 2030년까지 길이 3천700km, 20만ha의 산림대를 조성하는 그린벨트 사업을 계획했다. 인천환경원탁회의 구성원 23명이 2007년도에 몽골 환경부 장관을 방문했을 때 그린벨트 계획에 대한 당해 연도 예산은 우리 돈으로 1억 원이었을 정도로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 계획만 있는 형편이었다. 당시 1인당 국민총생산액이 1천500달러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이해는 간다. 지금은 연간 10억 원 정도라고 하므로 과거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절대적으로는 부족하다. 먹고살기에 치중하는 저개발국가의 전형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몽골 정부가 고비사막 한가운데서 관료회의를 개최하며 몽골 전 국민들에게 5월과 9월 중순에 1주일 동안을 식목주간으로 지정하는 등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각급 학교에서 나무심기 경연대회 개최, 1인당 3그루 나무 심기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시범적으로 10개 학교에 200그루씩을 심는 활동도 병행했다. 당시 학교 조림 행사에는 몽골 교육부 장관도 참여해 식수했으나 1년 후 다시 찾은 해당 학교에는 40% 정도의 식림주만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학교관리자의 나무에 대한 확실한 신뢰 부족이라는 한계를 보여주는 일이었다. 근본적으로는 몽골 전통문화가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을 이어가기에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목축에 방해되는 나무나 숲에 대한 고착된 관습은 쉽게 바뀌지 않을 터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조림정책이 뒷받침된다면, 그리고 인천과 같은 시민들의 노력이 병행된다면 몽골인들이 스스로 나무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날이 성큼 다가올 것을 믿는다.

서해안 강남구(?) 지제·세교

"강남에서 20분이면 지제·세교지구에도 도착합니다." 강남구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업무방해죄로 전 A 조합장이 사법처리(집행유예)되면서 공석이 된 조합장 선출을 위한 2차 총회를 가졌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지제·세교조합과 대책위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임 조합장 선출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 결과 총 7명의 후보가 등록됐다. 그런데 조합 선거위원회는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있기 전날인 2월 19일 조합장 임후보자 4명에게 메일·문자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후보 등록 취소 의결을 통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해당 후보와 나머지 3명의 후보 중 2명이 조합 선관위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후보를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은 조합 선관위에서 추천한 B후보를 놓고 임시총회를 가졌다. 하지만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는 전체 조합원 268명 중 80명(위원장 포함)만이 찬성해 정관에 규정된 임시총회 개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 같은 조합원들의 반발로 새롭게 임후보를 받은 다음에 개최될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조합 선관위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B후보를 또다시 단독으로 내세워 임시총회를 가졌다. 그러나 투표 결과 과반수 135명의 성원이 되어 하나 120명만 참석(위원장 제출 30명 포

함)해 또다시 무산됐고, 오후 9시에 폐회돼 향후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제·세교지구 바로 옆에 있는 390만여㎡의 삼성반도체 공장도 공정을 30%를 넘어서며 하루하루가 다르게 공사가 진척되고 있으며, 모산·영신지구도 인접해서 곧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평택시의 관문이 될 강남구 지제·세교지구가 새로운 인물이 조합장으로 선출돼 하루 빨리 정상화돼 조합원들의 갈등이 없는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지제·세교지구는 올해 8월 KTX가 개통됨에 따라 교통의 요지로 1번국도와 지하철, 철도가 만나는 환승역이 생기면서 서강남구 지제·세교동(?)이란 말이 지역 주민들에게 퍼지면서 노른자 중의 노른자 땅으로 변모하고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

성남 법조단지 이전, 본시가지 공동화 대안 시급

이정길칼럼



성남시의회 의원

다. 새로 얻는 지역이아 대한영향 일 이겠지만, 잃는 지역은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이치다. 문제는 얻는 대가의 크기와 잃는 지역의 빼앗김의 크기에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얻는 곳이야 이득이 생기겠지만, 잃는 지역은 생계 위협을 느낀다면 결국 이것은 성남 본시가지와 분당지역의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것이다. 본시가지 상황을 보면 수정구 태평동에 있던 시청사가 2009년 현재의 중원구 여수동으로 이전한 후 옛 시청 주변 상권은 침체되기 시작했다. 음식점을 시작으로, 사무용품 관련 업종과 임대업종 등으로 침체가 확산돼 갔고, 세입자가 수시로 바뀌는가 하면 많은 식당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이후의 모습이자 현실이다. 이보다 앞서 2001년에는 상공회의소가 이태동으로 이전해 갔고, 1999년에는 성남교육지원청이 서현동으로, 2006년에는 성남고용노동지원청이 야탑으로 떠나면서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자리한 현단대동 지역도 이와 다를 것 없다. 이 주변에는 변호·법무·속기·녹취 등의 업무를 보는 사무실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으며, 음식점과 임대업도 성업 중이다. 이들은 법원, 검찰청과 관련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다. 법원, 검찰청이 떠나게 되면 이들

중 상당수는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돼 있다. 그나마 이전 후 법원, 검찰청을 따라 인근으로 잘 옮긴다면 지장이 적겠지만, 거리가 멀고 임대료가 높은 곳으로 간다면 분명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법원, 검찰청사에 대한 신속 또는 이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생계는 무시한 채 법조단지 이전에 대해 정치적인 접근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이유다. 법원, 검찰청을 유지해 지역구 활성화는 도모하려는 뜻은 공감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본시가지 공동화 현상의 대책 필요성이 우선적이다. 별다른 대안 없이 총선을 등에 업은 이슈로 법조단지 이전에만 몰두한다면 남은 주민들, 우리 이웃들의 경제적 여파는 볼 보듯 뻔할 것이다. 더욱이 법원, 검찰청 이전은 성남 본시가지 활성화라는 균형발전의 상징성과도 밀접히 관련돼 있다. 성남시는 이러한 법조단지 문제의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관점이 아닌 민생 차원에서 접근해 법원 당국과의 진솔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정치'라는 말이 있다.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눈물을 흘리도록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다시금 돌아켜볼 때다.

기호일보 kihoilbo.co.kr
회장·발행인 서강훈 / 편집·인쇄인 한창원 / 편집국장 전기식 / 경기본사 편집국장 정준영
인천본사 032-761-0001 / 경기본사 031-898-6767-8 / 경기북부본사 031-872-2990
구독신청 032-761-0007 / 판 매 국 032-761-0013 / 광고문의 032-761-0002
지국 전화 번호: 김 단 032-563-0022, 계 양 032-547-5947, 남 구 032-882-2547, 남 동 032-421-1966, 동 구 032-764-2775, 부 평 032-526-9400, 석 남 032-576-4191, 송 도 032-831-0797, 연 수 032-811-6911, 연 인 032-887-7355, 연 회 032-561-4189

상식한토막 싱크홀(Sinkhole)
땅속에 있는 암석이 침식되거나 지하공동이 붕괴되며 땅이 원기둥이나 깔때기 모양으로 가라앉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기반암이 석회석이거나 탄산염 암석과 같은 부드러운 광물일 때 많이 나타난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갑자기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2013년 중국 허베이(河北省) 공장부지가 지름 50m의 싱크홀 현상에 의해 무너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국내에서도 2012년 인천시 서구에서 폭 12m의 싱크홀에 빠진 한 남성이 사망한 경우가 있었다. 지난 28일에도 인천시 동구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현재 원인을 놓고 분석 중이다. 최근 추세를 보면 자연발생적 원인보다는 지하수 개발과 지하철 공사 등에 의해 인제에 가까운 싱크홀이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부실공사 등에 의한 싱크홀은 지반 함몰 내지 지반침하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京>

Hand337.com
www.hand337.com
사 회복식방인 손과손 앤인앤
Clean 32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7번지
전화: 032-521-7471
팩스: 032-521-7472

사회적기업 핸인핸
핸인핸(대표:장영순)은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써 중증장애인과 고령자들에게 적절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사회적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핸인핸은 고객들의 가치창출을 위한 품질경영을 추구하고 있으며, KS표신인증과 ISO 9001:2008을 획득하였으며, 또한 "인천광역시품질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선정 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생산품에 대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입니다.
핸인핸은 일하는 근로자들과 고객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핸인핸의 첫술은 국민의 치아건강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최고의 품질과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생산하여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핸인핸에서 생산하는 재생카트리지는 전문기술자와 훈련된 장애인들이 최신의 생산시스템 속에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이 품질과 가격 모두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경쟁력 있는 갖추고 있습니다.
핸인핸이 중증장애인과 고령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삶의 터전으로 성장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BLU337 카트리지사업부
인천시 부평구 부평6동 633
전화 032-527-0337
팩스 032-507-0337
Clean 32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7번지
전화: 032-521-7471
팩스: 032-521-7472

김윤식의 인천 만보(漫步)



인천문화재단 대표

사실이었던지 아니면 그냥 떠돌던 이야기였는지 모르지만 고일(高逸)선생의 「인천석금」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전해온다. 바로 채동지(蔡洞知)에 관한 이야기이다.

채동지는 거구에 아주 통통했던 사람으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던 전설적인 인물이다. 이 인물이 옛 인천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는 것이다. “그는 35세에 인천에 와서 함강, 진갑을 지내고 웃터골 부근 인천여자중학교 뒷미처 길에서 객사했다고 한다. 아마 선 이상 된 향토인은 유소년 시절에 이 거인을 날마다 거리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는 개간너(서곶)에서 왔다고 하며, 성은 채 가요, 이름은 그저 동지라 하고, 누구나 그를 채동지라고 불렀다.”

이것이 「인천석금」의 기록 일부다. 이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채동지는 양쪽 겨드랑이에 큰 바늘을 단 채 태어났다고 한다. 동네에 장사가 났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 부모가 후환이

두려워 바늘을 떼어 버렸다고 한다. 아이는 서너 살이 되도록 말을 하지 않았는데 신장과 체중은 유달리 크고 무거웠다는 것이다. 이인(異人)으로 일컬어졌던 채동지의 전설은 특히 그의 입속 침에 있었다. 그의 침이 영험해서 만병을 낫게 했다고 「인천석금」은 쓰고 있다.

“채동지가 입에서 흘리는 침을 과자에 묻혀 먹으면 ‘백병통치(百病痛治)’라 해서 부녀자들이 그의 침을 구하러 다녔는데, 어린 소년과 젊은 청년이 근처에 가면 버럭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아낙네와 중년 부인이 근처에 오면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었다. 이리해서 인천에서만 그의 이름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문이 퍼졌다.”

고일 선생 말대로 채동지의 소문이 전국으로 퍼졌던지 1933년 11월호 「별간근」 잡지에도 “소위 채동지라는 과물도 여지간이 통통하야 그 사람의 침만 먹어도 병이 낫는다고 악을 악을 쓰고 차저갓던 녀자들이 각급 경풍을 하얏섯다”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채동지 이야기는 그보다 앞서 조선 말기 온건 개화파 관료였던 김윤식(金允植)의 일기 「속음청사」에도 나온다. 1913년 2월 19일자 일기에는 “有蔡洞知者, 或云本姓李, 生

채동지 전설

有異蹟, 弊衣垢面, 乞食村家, 能知人家飯匙大小, 善治人病, 病人爲餅餌之屬, 往說已病, 蔡爲之啗其餅, 以其餘, 使病人食之, 病必愈” 운운하는 구절이 있다. 「인천석금」의 내용과 비슷하게, 남루하고 더러운 길인 채동지가 날 때부터 행적이 특이하며 사람들 병을 잘 고치는데, 그가 먹다 남긴 떡을 병자가 먹으면 쾌유한다는 이야기다. 특이한 것은 채동지의 본성(本姓)이 이(李)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쓴 부분이다. 1914년 4월 6일자 일기에는 다시 채동지의 본성이 김(金)이며, 그의 신비한 침으로 두통을 낫게 했다는 이야기와 세간에 떠도는 채동지의 여러 괴사(怪事) 등을 적고 있다. 또 그의 외손녀가 손에 경련이 있어 채동지를 찾아가 세 차례에 걸쳐 떡을 바치고 그가 먹다 남은 것을 가지고 왔다는 내용도 있다.

그 밖에 채동지에 관한 이야기는 한말 개화파의 한 사람이었던 윤치호(尹致昊)의 영문일기(1920년 11월 11일)에서도 볼 수 있다. 「인천석금」의 ‘침바른 과자’ 이야기와 유사한 내용이다. 그러나 1935년 7월 21일 일기에는 채동지를 한낱 사기꾼(cheat)으로 적고 있다. 국어사전은 ‘채동지’를 “말과 행동이 허무맹랑한 사람을 놀

림조로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윤치호와 비슷한 시각 때문인지 모른다.

“그가 인천에 나타난 것이 45년 전 일이고, 그가 죽은 것은 18년 전 일인가. 그는 바람과 같이 나타나서 바람과 더불어 사라진 것이다.” 「인천석금」에 따르면 이 책이 나온 때가 1955년이니 채동지의 인천 출현은 1910년이고 사망은 1937년이 된다.

또 향토사가 이훈의(李薰益)선생은 채동지가 파주에서 김포, 서곶을 거쳐 인천에 왔다고 적고 있다. 파주에서는 채동지 이야기가 ‘아기장수 설화’로 대체, 전승되고 있으니 얼마간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울던 아이도 ‘채동지 온다’ 하면 울음을 그쳤다는 이인 채동지가 왜 인천을 찾았는지, 그리고 왜 전국을 배회하다 다시 인천 땅에 와서 객사했는지...

고일 선생의 기록처럼 당시 내리에 배당 어귀에서 서덜국과 막걸리를 팔던 술집 주인 배 씨가 그나마 채동지에게 따뜻한 국밥을 제공했기 때문이었을까. 한 세기, 인천 근현대사 속에 이 같은 기이한 전설도 숨어 있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민참여보도사업의 일환입니다.

자치플라자

김병태



수원시 관광과장

꿈을 꾸다.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꿈의 주제는 ‘수원관광’이다. 우리 수원시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이다. 수원시는 관광산업을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중심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을 기념해 추진 중인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이다.

‘수원화성 방문의 해’는 독특한 발상에서 시작됐다. 그동안 국가 또는 광역자치체에서 추진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지역 개념이 아닌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한도전(무모한 도전)이라는 시선도 많았다. 그러나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고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는 지난 1월 개막주간(학술대회, 관광포

수원관광, 현재와 미래를 기대하며

럼, 관광특구 선포식)과 함께 그 시작을 알렸다. 방문의 해 주요 사업은 KBS 열린음악회부터 수원연극축제, 아시아호텔페스티벌 in 수원, K-POP 슈퍼콘서트, 수원국제음악제, 재즈페스티벌,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까지 다채롭게 준비돼 있다.

관광성과 중 양적접근(quantitative approach)이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소비 증대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의 연계라면, 질적접근(qualitative approach)은 관광객의 지역 방문을 통한 관광도시로의 인식,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수원은 수도권에 위치하면서도 관광의 불모지나 다름없었으나 수원화성 복원,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을 통해 국내 대표 관광지로 입지를 다졌다. 이제는 목표시장을 전 세계로 확장해야 한다.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많은 외래 관

객을 유치해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수원시의 관광자원을 홍보해야 한다. 이것이 수원관광, 관광 선진도시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방문의 해 주요 프로그램 중 기본 좋은 중간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의 업무협약과 협약을 통해 인접 해외 국가의 대표 아웃바운드 여행사가 방문의 해 프로그램에 대단위 관광객을 모객하고 송출할 계획이다. 우리 수원시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향후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수용 태세를 더욱 견고히 할 예정이다.

수원관광의 미래를 위한 또 다른 준비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의 다양한 모니터링이다. 현재 목표가 국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 유치·홍보를 통한 관광도시로의 이미지 제고라면 미래는 좀 더 성숙한 준비를 통한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관광 발전이라 볼 수 있다.

단체관광(mass tourism) 대 개별관광(individual tourism), 관광 유형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수원관광의 성패는 단체관광객과 개별관광객의 적절한 조화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문의 해를 찾는 관광객의 유형, 만족도, 재방문 의사, 추가적인 관광 니즈 파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중요한 사항이다. 다양한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수원시 관광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방문의 해를 통한 또 다른 목표는 수원관광의 발전방향 모색이다. 저가관광을 통한 양적성장보다는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관광사업체, 지역주민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질적향상을 힘쓸 것이다.

꿈을 꾸다. 수원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허브도시로서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역 관광을 연계하는 거점형·체류형 관광으로 거듭 발전하는 모습을...

사설

인천항 활성화 정부방침에 거는 기대

최근 해양수산부가 환황해권 거점항만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인천항 컨테이너 기능 조정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침은 우선 신항의 현안사항인 배후단지 1단계 1구역(64만㎡) 조기 공급이다. 예산을 집중 투자해 당초 계획을 앞당긴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신항 배후시설 부족에 따른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소량화물 전용 보세창고를 건립하고, 신항 관리부두 내 화물차 주차장 및 휴게소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해수부가 마련한 대책은 신항 운영 본격화에 따라 대형 선박을 수용할 수 있고, 첨단 하역장비를 갖춘 신항을 중심으로 인천항의 컨테이너 처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부두 시설 외 배후 기능이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신항 인근 LNG기지에서 발생하는 초저온 냉열에너지를 신항 배후단지 1구역으로 이송받아 냉동·냉장창고에 활용하는 방식의 23만㎡ 규모 냉열공급시설과 물류센터 내내 말까지 공급한다는 계획도 포

함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 인천항의 컨테이너와 일반화물 처리 기능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능 재배치 방안을 추가로 수립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정부 방침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여건 변화를 기회로 삼아 인천항의 중·장기적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는 데 동감하고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 모든 계획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그동안 인천항은 타 항만에 비해 정부지원예산이 턱없이 부족, 정부의 홀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정부의 인천항 활성화 방침을 정부예산 투자보다는 모든 사업을 민간개발로 돌리고 있어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인천항은 238만TEU를 처리하는 국내 2위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항 배후단지의 공급이 늦어지면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 방침이 총선을 앞둔 집권정당의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길 바란다.

봄철 화재예방에 만전을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봄철을 맞아 눈·발두령 소각 시 들불과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해마다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당국이 봄철 화재 예방에 힘을 쏟을 것을 강조하지만 좀처럼 줄지 않는 화재다. 특히 산불의 경우 신속한 진화도 어렵거니와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온다. 산속의 사찰 등 문화유적이 피해를 당할 경우 귀중한 문화유산을 잃게 되기도 한다. 화마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 안 되겠다.

도내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들불과 산불 화재로 3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치는 등 귀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게다가 재산피해만도 5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에서 발생한다. 특히 봄철 화재는 농민들이 병충해를 방제하며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우다가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 병충해 방제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다. 때문에 효과도 미미한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들불과 산불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잡초 소각을 자제해야 하겠다. 재난안

전본부는 어쩔 수 없이 잡초나 쓰레기 등을 태워야 할 경우 관할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하고, 불씨가 번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소화기 등의 장비를 반드시 갖춘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안전당국의 이 같은 주의를 결코 가벼이 지나치면 안 되겠다. 특히 봄철에는 등산객들이 산행을 하면서 피우던 담배꽂이를 무심코 버리곤 하는 데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산불 발생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등산객들에게 화기소지를 금하도록 하는 것도 산불 예방의 한 방법이라 하겠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다. 들불과 산불 외에도 낡은 전기시설과 가스시설 등을 주의할 기울이지 않고 다룬다가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화재 취약지역과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하겠다. 하지만 당국의 점검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각 시민 가정에서의 화재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식목일을 전후해 나무 심기가 한창이다. 정성을 기울여 심고 가꾼 산림이 자칫 한 시민의 부주의로 인해 산불로 번질 경우 그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산림은 한 번 타고 난 후 회복하려면 엄청난 예산과 시일을 요하게 된다.

GS Design Group Architects Miniature.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1-9호 2층 TEL.02)418-0664,5 FAX.02)417-9985. 時間을 앞서서 空間을 창조하는 예술이기에 지에스 디자인은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찾아갑니다. 기획력이 뒷받침 된 디자인,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테크놀로지, 사업성까지 생각하는 크리에이티브까지 지에스는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정성과 열정으로 한국 모형의 미래를 앞당기겠습니다. Total Modeling Service - GS Design. Prize Plan Modeling, Subdivision Modeling, Unit Modeling, Location Modeling, The Others Modeling. 현장설계 모형, 분양용 모형, 유닛 모형, 지역 모형, 기타 모형.

텔레비전

프로그램 문의 OBS(032-670-5130) KBS(02-781-1800) MBC(02-780-0015) SBS(02-2113-3190) EBS(02-526-200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1	KBS 2	MBC	SBS	OBS	EBS
5	5:00 KBS 뉴스 5:10 한국인의 밥상 6:00 KBS 뉴스 경장 7:50 인간극장	6:00 2TV 아침	5:00 MBC 뉴스 5:10 사람, 산 6:00 MBC 뉴스투데이 <1~2부> 7:50 MBC 아침 드라마 <내일도 슬리>	5:00 SBS 뉴스 5:10 굿모닝 510- 특별한 오늘 6:00 모닝와이드 <1~3부>	6:00 와이드 ASIA <두부의 맛> 6:50 OBS 전격 인터뷰 7:00 특별한 연예 뉴스 7:40 OBS 뉴스	오전 5:00 EBS 생활영어 40 희망풍경 6:10 명인 7:00 콘 30 모피와 친구들 8:00 두다다콩 30 봉구야 말해줘? 45 Why-최고다! 호기심 딱지 9:00 명탐정 피트? 40 다문화 고부열전 스페셜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하나뿐인 지구 40 한국기행
8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8:00 KBS 아침 뉴스 타임 9: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바> 9:40 여유만만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MBC 생활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8: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10 좋은 아침	8:10 월드 트래킹 명산 8:40 미디어 공감 좋은 TV 9:40 OBS 뉴스	오전 30 모피와 친구들 8:00 두다다콩 30 봉구야 말해줘? 45 Why-최고다! 호기심 딱지 9:00 명탐정 피트? 40 다문화 고부열전 스페셜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하나뿐인 지구 40 한국기행
10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역사지널 그날 11:50 별별가족 11:55 안영 우리말	10:40 지구촌 뉴스 11:00 인간극장 스페셜	11:00 MBC 파워매거진	10:10 SBS 뉴스 10:25 SBS 생활 경제 11:00 막 좋은 나이	10:00 드라마 극장 <하늘> 11:10 Music & Movie <경인투데이>	오전 12:00 EBS 정오 뉴스 20 생활속 EBS 교육대토론 1:40 명탐정 피트 2:00 시계마을 타기투 30 지파이터스 3:00 드래곤 갑들이기 25 정글북 50 풀리와 함께하는 교통안전이 야기 4:00 명탐정 피트? 30 풀리워링 하트 5:00 마사의 꿈 30 두다다콩 6: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7:00 안전 블랙박스 30 EBS 뉴스 50 장수의 비밀 스페셜 8:2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50 하나뿐인 지구 9:30 한국기행 50 명인 10:45 아버지의 귀환 11:35 고전영화극장 <싱게 2부>
12	12:00 KBS 뉴스 1:00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	12:15 인간극장 스페셜	12:00 MBC 정오 뉴스 12:20 주말드라마 <가화만사성-9~10화>	12:00 SBS 뉴스 12:50 주말드라마 <그때, 그거야>-13~14화>	12:00 자전거 식객 1:00 꿈꾸는 U	오전 12:00 EBS 정오 뉴스 20 생활속 EBS 교육대토론 1:40 명탐정 피트 2:00 시계마을 타기투 30 지파이터스 3:00 드래곤 갑들이기 25 정글북 50 풀리와 함께하는 교통안전이 야기 4:00 명탐정 피트? 30 풀리워링 하트 5:00 마사의 꿈 30 두다다콩 6: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7:00 안전 블랙박스 30 EBS 뉴스 50 장수의 비밀 스페셜 8:2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50 하나뿐인 지구 9:30 한국기행 50 명인 10:45 아버지의 귀환 11:35 고전영화극장 <싱게 2부>
2	2:00 열린채널 2:30 영상앨범 산 3:00 우리말 겨루기 3:55 튜브생활체조	2:00 KBS 뉴스타임 2:10 생활의발견 3:05 후토스-일어버린 숲 3:30 두리동생 동계공방3	2:30 리얼스토리 눈 2:40 MBC 뉴스 3:10 키즈 CSI 과학수사대 3:40 드림주니어	3:00 3시, 뉴스 브리핑	2:00 푸르기 TV 2:55 행복 부동산 연구소 3:40 인생열전 <살맛나는 세상>	오전 12:00 EBS 정오 뉴스 20 생활속 EBS 교육대토론 1:40 명탐정 피트 2:00 시계마을 타기투 30 지파이터스 3:00 드래곤 갑들이기 25 정글북 50 풀리와 함께하는 교통안전이 야기 4:00 명탐정 피트? 30 풀리워링 하트 5:00 마사의 꿈 30 두다다콩 6: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7:00 안전 블랙박스 30 EBS 뉴스 50 장수의 비밀 스페셜 8:2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50 하나뿐인 지구 9:30 한국기행 50 명인 10:45 아버지의 귀환 11:35 고전영화극장 <싱게 2부>
4	4:00 오늘의 경제 4:10 내고향 스페셜 한국인의 밥상 5:00 KBS 뉴스 5:20 시사선단	4:00 누가누가 잘하나 5:00 이욱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 5:20 뮤직뱅크	4: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5:00 MBC 이브닝 뉴스	4:00 고교가 보인다 4:30 잠속! 예나일드 <1~2부> 5:30 SBS 뉴스퍼레이드	4:40 OBS 뉴스 & 이슈 5:40 드라마 극장 <하녀들>	오전 12:00 EBS 정오 뉴스 20 생활속 EBS 교육대토론 1:40 명탐정 피트 2:00 시계마을 타기투 30 지파이터스 3:00 드래곤 갑들이기 25 정글북 50 풀리와 함께하는 교통안전이 야기 4:00 명탐정 피트? 30 풀리워링 하트 5:00 마사의 꿈 30 두다다콩 6: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7:00 안전 블랙박스 30 EBS 뉴스 50 장수의 비밀 스페셜 8:2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50 하나뿐인 지구 9:30 한국기행 50 명인 10:45 아버지의 귀환 11:35 고전영화극장 <싱게 2부>
6	6:00 6시 내고향 6:55 시청자 클럽 우리사는 세상 7:00 KBS 뉴스 7:30 특별한 소비자 리포트	6:50 2016 프로그래밍 개막전 <두산-삼성>	6:10 영집의 CEO들 7:15 일일 연속극 <최고의 연인> 7:55 MBC 뉴스데스크	6:05 생방송 투데이 6:00 잠속! 예나일드 <1~2부> 5:30 SBS 뉴스퍼레이드	6:50 위대한 자연 7:35 K-매니페스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7:40 OBS 뉴스 M	오전 12:00 EBS 정오 뉴스 20 생활속 EBS 교육대토론 1:40 명탐정 피트 2:00 시계마을 타기투 30 지파이터스 3:00 드래곤 갑들이기 25 정글북 50 풀리와 함께하는 교통안전이 야기 4:00 명탐정 피트? 30 풀리워링 하트 5:00 마사의 꿈 30 두다다콩 6: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7:00 안전 블랙박스 30 EBS 뉴스 50 장수의 비밀 스페셜 8:2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50 하나뿐인 지구 9:30 한국기행 50 명인 10:45 아버지의 귀환 11:35 고전영화극장 <싱게 2부>
8	8:25 일일 연속극 <우리 집 꽃단지> 9:00 KBS 뉴스9	8:50 2016 프로그래밍 개막전 <두산-삼성>	8: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9:30 능력자들	8:00 SBS 8 뉴스 8:55 궁금한 이야기 Y	8:35 오늘의 월드뉴스 9:05 특별한 연예 뉴스 9:45 오 이맛이야	오전 12:00 EBS 정오 뉴스 20 생활속 EBS 교육대토론 1:40 명탐정 피트 2:00 시계마을 타기투 30 지파이터스 3:00 드래곤 갑들이기 25 정글북 50 풀리와 함께하는 교통안전이 야기 4:00 명탐정 피트? 30 풀리워링 하트 5:00 마사의 꿈 30 두다다콩 6: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7:00 안전 블랙박스 30 EBS 뉴스 50 장수의 비밀 스페셜 8:2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50 하나뿐인 지구 9:30 한국기행 50 명인 10:45 아버지의 귀환 11:35 고전영화극장 <싱게 2부>
10	10:00 명견만리 10:55 숨터 11:00 KBS 뉴스라인 11:40 생방송 심야토론	10:30 나를 돌아봐 11:50 유희열의 스케치북	11:05 나 혼자 산다	10:00 정글의 법칙 11:20 웃음을 찾는 사람들	10:40 OBS 뉴스라인 11:05 윤니극장 <이것이 인생>	오전 12:00 EBS 정오 뉴스 20 생활속 EBS 교육대토론 1:40 명탐정 피트 2:00 시계마을 타기투 30 지파이터스 3:00 드래곤 갑들이기 25 정글북 50 풀리와 함께하는 교통안전이 야기 4:00 명탐정 피트? 30 풀리워링 하트 5:00 마사의 꿈 30 두다다콩 6: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7:00 안전 블랙박스 30 EBS 뉴스 50 장수의 비밀 스페셜 8:2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50 하나뿐인 지구 9:30 한국기행 50 명인 10:45 아버지의 귀환 11:35 고전영화극장 <싱게 2부>
12	1:00 KBS 스포츠 중계식 2:35 이욱정 찰스 3:30 T 타임 4:00 내고향 스페셜	1:15 영상앨범 산	12:35 MBC 뉴스 1:00 꽃미남 브로맨스 2:00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2:5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3:45 문화사색	12:35 백중원의 3대천왕 2:0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3:05 스포츠 빅 이벤트	12:05 베스트 가요쇼 1:05 Music & Movie 1:35 행복 부동산 연구소	오전 12:00 EBS 정오 뉴스 20 생활속 EBS 교육대토론 1:40 명탐정 피트 2:00 시계마을 타기투 30 지파이터스 3:00 드래곤 갑들이기 25 정글북 50 풀리와 함께하는 교통안전이 야기 4:00 명탐정 피트? 30 풀리워링 하트 5:00 마사의 꿈 30 두다다콩 6: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7:00 안전 블랙박스 30 EBS 뉴스 50 장수의 비밀 스페셜 8:2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50 하나뿐인 지구 9:30 한국기행 50 명인 10:45 아버지의 귀환 11:35 고전영화극장 <싱게 2부>

	KBS 1	KBS 2	MBC	SBS	OBS	EBS
5	5:00 KBS 뉴스 5:10 KBS 네트워크 참 TV 6:00 KBS 뉴스경장 7:50 남북의 창	6:00 숨터 6:20 다크 공감 7:10 이욱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 7:20 생생정보 스페셜	5:00 우리가족 우리문화 6:00 MBC 뉴스투데이 <1~2부> 7:30 MBC 월드리포트	5:00 문화가 쏠쏠 6:00 특집 모닝와이드 <1~2부> 7:40 SBS 뉴스토리	6:00 여영차 바다 野 6:55 테마 스페셜 7:50 윤니극장 <이것이 인생>	오전 5:00 한국어 쉬워요 30 성공시대 기능한국인 6:00 낭랑 108세 30 통일의 길 7:00 로보카폴리 30 시계마을 타기투 8:00 레이디버그 30 모피와 친구들 9:00 두다다콩 25 봉구야 말해줘 40 마사의 꿈 10:00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11:00 결박 프로젝트 30 미션! 일글리시
8	8:3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9:30 KBS 뉴스 9:40 걸어서 세계속으로	8:50 특파원 현장보고 9:30 동네스타전국방송내보내기	8:00 경제매거진 M 8:55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9:50 능력자들 스페셜	8:30 동상이름 관찰야 관찰야 9:40 자기가 - 백년손님	8:45 두근 두근 아시아 9:45 일마의 불날	오전 5:00 한국어 쉬워요 30 성공시대 기능한국인 6:00 낭랑 108세 30 통일의 길 7:00 로보카폴리 30 시계마을 타기투 8:00 레이디버그 30 모피와 친구들 9:00 두다다콩 25 봉구야 말해줘 40 마사의 꿈 10:00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11:00 결박 프로젝트 30 미션! 일글리시
10	10:30 영상앨범 산 11:00 사랑의 가족 11:55 숨터	10:35 영화가 좋다 11:30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11:00 찾아라 맛있는 TV	10:55 접속! 무비월드	10:40 멜로다큐 <가족> 11:40 OBS 뉴스 11:50 로드 다크 <만남>	오전 5:00 한국어 쉬워요 30 성공시대 기능한국인 6:00 낭랑 108세 30 통일의 길 7:00 로보카폴리 30 시계마을 타기투 8:00 레이디버그 30 모피와 친구들 9:00 두다다콩 25 봉구야 말해줘 40 마사의 꿈 10:00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11:00 결박 프로젝트 30 미션! 일글리시
12	12:00 KBS 뉴스 12:10 국악 한마당 1:0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킨 1:10 통돌이 왕국	12:00 KBS 뉴스 12:10 국악 한마당 1:0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킨 1:10 통돌이 왕국	12:00 MBC 뉴스 12:10 수목미니시리즈 <good-by e 미스터 블랙-5-6화> 1:50 2016 KBO 리그 <롯데 : 넥센>	12:00 SBS 뉴스 12:10 수목미니시리즈 <good-by e 미스터 블랙-5-6화> 1:50 2016 KBO 리그 <롯데 : 넥센>	12:50 베스트 가요쇼 1:50 OBS 시네마 <잘못된 만남>	오전 5:00 한국어 쉬워요 30 성공시대 기능한국인 6:00 낭랑 108세 30 통일의 길 7:00 로보카폴리 30 시계마을 타기투 8:00 레이디버그 30 모피와 친구들 9:00 두다다콩 25 봉구야 말해줘 40 마사의 꿈 10:00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11:00 결박 프로젝트 30 미션! 일글리시
2	2:00 헬로카봇3 2:15 걸리시 키즈 2:30 두리동생 동계공방3 2:45 생일왕국의 프린세스 프랑 3:00 세계인 스페셜 3:10 한국인의 밥상	2:00 슈퍼맨이 돌아왔다 3:45 공사장림 특별기획 <대양의 후예>	2:25 런닝맨 3:30 SBS 뉴스 3:40 보컬 전쟁 신의 목소리	2:25 런닝맨 3:30 SBS 뉴스 3:40 보컬 전쟁 신의 목소리	3:45 글로벌 비전	오전 5:00 한국어 쉬워요 30 성공시대 기능한국인 6:00 낭랑 108세 30 통일의 길 7:00 로보카폴리 30 시계마을 타기투 8:00 레이디버그 30 모피와 친구들 9:00 두다다콩 25 봉구야 말해줘 40 마사의 꿈 10:00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11:00 결박 프로젝트 30 미션! 일글리시
4	4:05 명견만리 5:00 KBS 뉴스 5:10 다시 쓰는 건설신화	4:55 공사장림 특별기획 <대양의 후예>	5:35 우리 결혼 했어요	4:50 토요일이 좋다 1부 <오 마이 베이비>	4:40 OBS 뉴스 4:50 사이언스 X파일 기적의 문명 5:45 추적포 <사라진 가족>	오전 5:00 한국어 쉬워요 30 성공시대 기능한국인 6:00 낭랑 108세 30 통일의 길 7:00 로보카폴리 30 시계마을 타기투 8:00 레이디버그 30 모피와 친구들 9:00 두다다콩 25 봉구야 말해줘 40 마사의 꿈 10:00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11:00 결박 프로젝트 30 미션! 일글리시
6	6:00 나눔의 행복 기부 6:15 동행 7:00 KBS 뉴스 7:15 다크 공감	6: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7:55 주말 연속극 <아이가 다섯>	6:25 무한 도전 7:55 MBC 뉴스데스크	6:10 토요일이 좋다 2부 <백중원의 3대천왕>	6:45 오늘은 경인대상 7:40 OBS 뉴스 M	오전 5:00 한국어 쉬워요 30 성공시대 기능한국인 6:00 낭랑 108세 30 통일의 길 7:00 로보카폴리 30 시계마을 타기투 8:00 레이디버그 30 모피와 친구들 9:00 두다다콩 25 봉구야 말해줘 40 마사의 꿈 10:00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11:00 결박 프로젝트 30 미션! 일글리시
8	8:05 KBS 글로벌 다크멘터리 9:00 KBS 뉴스 9 9:40 특집 한국의 야생 9:50 특선 앙코르 KBS 다크1	9:15 연애가 쏠쏠	8:45 주말 드라마 <가화만사성>	8:00 SBS 8뉴스 8:45 SBS 주말드라마 <그때, 그거야>	8:05 OBS 경인포커스 9:05 전기영화 씨네뮤지	오전 5:00 한국어 쉬워요 30 성공시대 기능한국인 6:00 낭랑 108세 30 통일의 길 7:00 로보카폴리 30 시계마을 타기투 8:00 레이디버그 30 모피와 친구들 9:00 두다다콩 25 봉구야 말해줘 40 마사의 꿈 10:00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11:00 결박 프로젝트 30 미션! 일글리시
10	10:45 콘서트 7080 11:45 KBS 뉴스 11:55 T 타임	10:35 드라마 <패이저 티너> 11:45 영화가 좋다	10:00 주말특별기획 <결혼계약> 11: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9:55 특별기획 <미세스 캅2> 11:10 그것이 알고싶다	10:05 OBS 시네마 <스콜피온 킹>	오전 5:00 한국어 쉬워요 30 성공시대 기능한국인 6:00 낭랑 108세 30 통일의 길 7:00 로보카폴리 30 시계마을 타기투 8:00 레이디버그 30 모피와 친구들 9:00 두다다콩 25 봉구야 말해줘 40 마사의 꿈 10:00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11:00 결박 프로젝트 30 미션! 일글리시
12	12:25 독립영화관 2:05 알약 특목 2:25 KBS 스포츠 중계식	12:50 KBS 스페셜	12:40 마이 리틀 베이비 2:00 스포츠 매거진 3:0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3:45 그린 실버 고향이 좋다	12:20 웃음을 찾는 사람들 1:30 잠속! 예나일드 2:00 영재발굴단	11:40 언더커버 보스 넥스트 12:35 중국 드라마 <은주말기>	오전 5:00 한국어 쉬워요 30 성공시대 기능한국인 6:00 낭랑 108세 30 통일의 길 7:00 로보카폴리 30 시계마을 타기투 8:00 레이디버그 30 모피와 친구들 9:00 두다다콩 25 봉구야 말해줘 40 마사의 꿈 10:00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11:00 결박 프로젝트 30 미션! 일글리시

	KBS 1	KBS 2	MBC	SBS	OBS	EBS
5	5:00 KBS 뉴스 5:05 노점판매 6:00 KBS 뉴스 6:10 생로병사의 비밀 7:05 안영 우리말 7:10 TV 회고록 올림	6:00 생생 정보 스페셜 7:05 KBS 재난방송센터 6:00 KBS 뉴스 7:45 연애가 쏠쏠	5:00 여영차 바다야 5:50 늘 푸른 인생 6:20 시간여행 그림 그렸지 7:00 MBC 뉴스 7: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5:00 예술을 만나다 6:00 SBS 뉴스 7:15 영상앨범 산 7:20 일일특선 다크멘터리	6:00 사람, 산 6:55 월드 트래킹 명산 7:25 TV 포럼 <경인의 아침>	오전 5:00 한국어 쉬워요 30 가족의 발전 6:00 낭랑 108세 30 희망풍경 7:00 꼬마버스 타요 30 쓰담쓰담 친구들 프렌즈 8:0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30 모피와 친구들 9:00 뽀빠뽀빠 로로로 25 호기심나라 오기도 50 풀리워링 하트 10:2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50 사랑음악여행 11:4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8	8:00 2016 대구 국제마라톤대회	9:00 1박 2일	8:00 해피 타임 9:10 복면가왕 스페셜	8:20 식사하셨어요? 9:30 TV 동물농장	8:25 위대한 자연 9:20 OBS 일일드라마 <유나의 거리>	오전 5:00 한국어 쉬워요 30 가족의 발전 6:00 낭랑 108세 30 희망풍경 7:00 꼬마버스 타요 30 쓰담쓰담 친구들 프렌즈 8:0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30 모피와 친구들 9:00 뽀빠뽀빠 로로로 25 호기심나라 오기도 50 풀리워링 하트 10:2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50 사랑음악여행 11:4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10	11:00 제68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 11:30 코리아인 지오그래픽 플러스	10:30 출발! 드림팀 시즌2 11:40 해피투게더 스페셜	10:40 심비한 TV 서프라이즈 11:55 텔레문스터	10:50 드라마 스페셜 <돌아와요 아저씨-12화>	10:30 OBS 일일드라마 <유나의 거리> 11:40 OBS 뉴스 11:50 출격특기 영화일주	오전 5:00 한국어 쉬워요 30 가족의 발전 6:00 낭랑 108세 30 희망풍경 7:00 꼬마버스 타요 30 쓰담쓰담 친구들 프렌즈 8:0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30 모피와 친구들 9:00 뽀빠뽀빠 로로로 25 호기심나라 오기도 50 풀리워링 하트 10:2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50 사랑음악여행 11:4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12	12:00 MBC 뉴스 12:10 전국 노래 자랑 1:20 걸어서 세계속으로	1: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2:00 MBC 뉴스 12:10 출발! 비디오 여행 1:15 월화특별기획 <문스터-1~2화>	12:00 SBS 뉴스 12:10 정글의 법칙 1:15 월화드라마 <대박-1~2화>	12:50 행복 부동산 연구소 리포트 1:50 OBS 시네마 <스콜피온 킹>	오전 5:00 한국어 쉬워요 30 가족의 발전 6:00 낭랑 108세 30 희망풍경 7:00 꼬마버스 타요 30 쓰담쓰담 친구들 프렌즈 8:0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30 모피와 친구들 9:00 뽀빠뽀빠 로로로 25 호기심나라 오기도 50 풀리워링 하트 10:2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50 사랑음악여행 11:4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2	2:10 KBS 스페셜 3:05 코리아인 지오그래픽 플러스 3:20 다크 공감	2:25 주말 연속극 <아이가 다섯>	3:35 MBC 뉴스 3:45 혁신 TV 연예통신	3:30 SBS 뉴스 3:40 SBS 인기가요	3:25 와이드 블랙박스 3:45 오 이맛이야	오전 5:00 한국어 쉬워요 30 가족의 발전 6:00 낭랑 108세 30 희망풍경 7:00 꼬마버스 타요 30 쓰담쓰담 친구들 프렌즈 8:0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30 모피와 친구들 9:00 뽀빠뽀빠 로로로 25 호기심나라 오기도 50 풀리워링 하트 10:2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50 사랑음악여행 11:4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4	4:10 다시 쓰는 건설신화 5:00 KBS 뉴스 5:10 미디어 인사이트 5:40 통돌이 왕국	4:50 해피 선데이	4:50 일밤 1부 <복면가왕>	4:50 일요일이 좋다 1부 <런닝맨>	4:40 OBS 뉴스 4:50 리얼 대탐험 5:40 덕더! 건강의 정석	오전 5:00 한국어 쉬워요 30 가족의 발전 6:00 낭랑 108세 30 희망풍경 7:00 꼬마버스 타요 30 쓰담쓰담 친구들 프렌즈 8:0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30 모피와 친구들 9:00 뽀빠뽀빠 로로로 25 호기심나라 오기도 50 풀리워링 하트 10:2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50 사랑음악여행 11:4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6	6:00 열린 음악회 7:00 KBS 뉴스 7:10 도전, 골든벨	7:55 주말 연속극 <아이가 다섯>	6:45 일밤 2부 <진짜 사나이> 7:55 MBC 뉴스데스크	6:25 일요일이 좋다 2부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 5>	6:40 OBS 스페셜 7:40 OBS 뉴스 M	오전 5:00 한국어 쉬워요 30 가족의 발전 6:00 낭랑 108세 30 희망풍경 7:00 꼬마버스 타요 30 쓰담쓰담 친구들 프렌즈 8:0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30 모피와 친구들 9:00 뽀빠뽀빠 로로로 25 호기심나라 오기도 50 풀리워링 하트 10:2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50 사랑음악여행 11:4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8	8:00 궁금한 일요일 정경실쇼 9:00 KBS 뉴스9 9:40 특집 한국의 야생 9:50 역사지널 그날	9:15 개그 콘서트	8:45 주말 드라마 <가화만사성>	8:00 SBS 8 뉴스 8:40 제20대 총선방송연설 8:45 SBS 주말드라마 <그때, 그거야>	8:05 연예 매거진 9:05 명불허전	오전 5:00 한국어 쉬워요 30 가족의 발전 6:00 낭랑 108세 30 희망풍경 7:00 꼬마버스 타요 30 쓰담쓰담 친구들 프렌즈 8:0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30 모피와 친구들 9:00 뽀빠뽀빠 로로로 25 호기심나라 오기도 50 풀리워링 하트 10:2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50 사랑음악여행 11:4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10	10:40 취재파일 K 11:20 TV 책	10:40 다크멘터리 3일 11:40 우리동네 예체능 스페셜	10:00 주말 특별기획 <결혼 계약> 11:15 시사매거진 2580	9:55 특별기획 <미세스 캅2> 11:10 SBS 스페셜	10:05 OBS 시네마 <잘못된 만남>	오전 5:00 한국어 쉬워요 30 가족의 발전 6:00 낭랑 108세 30 희망풍경 7:00 꼬마버스 타요 30 쓰담쓰담 친구들 프렌즈 8:0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30 모피와 친구들 9:00 뽀빠뽀빠 로로로 25 호기심나라 오기도 50 풀리워링 하트 10:2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50 사랑음악여행 11:4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12	12:00 KBS 뉴스 12:10 BKS 바둑왕전 1:30 걸어서 세계속으로	12:50 생로병사의 비밀	12:05 2016 메이저리그 개막특집 <2016 MLB 쇼> 1:55 2016 메이저리그 개막전 <피츠버그-세인트루이스>	12:10 보컬 전쟁 신의 목소리 1:20 네트워크 특선	12:00 전기영화 씨네뮤지 12:55 중국 드라마 <은주말기>	오전 5:00 한국어 쉬워요 30 가족의 발전 6:00 낭랑 108세 30 희망풍경 7:00 꼬마버스 타요 30 쓰담쓰담 친구들 프렌즈 8:0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30 모피와 친구들 9:00 뽀빠뽀빠 로로로 25 호기심나라 오기도 50 풀리워링 하트 10:2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50 사랑음악여행 11:4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TV 하이라이트

우연히 만난 '양숙' 호철과 일도

★ OBS시네마 '잘못된 만남' <OBS 2일(토) 오후 1시50분> 한적한 마을 어귀에 차를 세우고 불일을 보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 그때 지나던 택시가 아들을 치고 갈 뻔한 상황을 모면하고 그 택시를 쫓게되면서 어린 시절 친구 일도와 호철의 인연이 다시 시작된다. 교통 경찰을 하게 된 '강일도'와 택시기사 '신호철'.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이 둘은 이웃 사촌이 되면서 양숙으로 지내게 된다. 고등학교 시절의 삼각관계, 군대에서 고참과 졸병으로의 만남, 이제는 이웃사



촌을 넘어 경찰과 택시기사로 만났다. 일도는 군대에서 호철에게 당한 설움을 생각하며 어떻게 복수할까 생각하고, 호철은 일도에게 첫사랑을 빼앗긴 과거가 있지만 위험에 처하게 된 일도를 도와주려 나섰다.

"동생아, 형이라고 한번 불러줄래?"

★ 한국영화특선 '우리 형' <EBS 3일(일) 밤 11시> 1990년대 후반, 한 고등학교. 같은 반에 연년생 형제가 재학중이다. 잘생긴 얼굴에 싸움까지 잘하는 '싸움 1등급' 동생 중현과 다정하고 해맑은 '내신 1등급' 형 성현. 어린시절부터 형만 편이었던 어머니 때문에 17년째 고전중이던 형제는 어느날, 두 형제가 동시에 최고 퀸카 미령에게 반하면서



### 인천석유화학 신입사원 네 명에게 묻는다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과 ‘88세대(88만 원을 받는 시대)’는 취업을 준비하는 20대의 암울한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말이다. 오죽했으면 청년실업과 전세난 등 사회의 어려움을 지옥에 비유한 ‘헬

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을까. 사실 청년들에게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에 비유된다. 이를 반영하듯 통계청이 내놓은 2월 청년실업률은 12.5%. 1999년 새 기준으로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늘의 별 따기에 성공한 친구들이 있다. 국내 정유사업의 한 부분을 이끄고 있는 ‘SK인천석유화학’에 당당히 입사한 기특한 친구들을 소개한다.



SK인천석유화학 신입사원들이 사옥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석, 박소영, 박민수, 최인재)

## 친화력·소통능력 나만의 장점 어필로 사원증 목에 걸었죠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SK인천석유화학의 경쟁률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이들은 김현석(27·기획팀), 박소영(24·아·생산기술팀), 박민수(25·장치팀), 최인재(27·기계팀) 등으로 이들 세내기의 톡톡 튀는 취업성공기를 들여보자.

먼저 ‘SK인천석유화학’에 지원한 동기를 물어봤다. 최인재 사원은 “지금도 플랜트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석유화학 플랜트에 관심이 많았다”며 “자연스럽게 공대에 진학했고, 선배들을 통해 SK의 기업문화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SK인천석유화학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초·중·고를 나와 ‘2014 인천아시아게임’ 당시 조직위에서 일하기도 했다는 김현석 사원은 “어린 시절부터 SK와 이븐스 경기를 보며 자란 탓에 SK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다”며 “인간중심의 경영을 펼치는 SK의 기업문화도 좋다는 말을 늘 들었기에 도전했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럼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자신만의 장점(selling point)은 무엇이었을까?

박민수 사원은 “인턴 경험을 통해 다른 지원자들보다 실제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며 “작은 크든 다양한 조직에서 미리 사회경험을 쌓아 두는 것이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일적인 박소영 사원은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초점을 맞췄다고 귀띔한다. “회사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재상에 비춰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K는 나 홀로 성장이 아닌 ‘이해관계자들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제가 가진 친화력과 배려심, 소통능력 등을 면접에서 최대한 강조한 것이 면접관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별 따기(취업)에 성공한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노하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어서 들어보자.

최인재 사원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했다. “취업 준비 초기에는 실패의 이유를 제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찾으며 억울해 한 적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큰 인기를 얻

### 인천 SK 석유화학 지원 동기?

아버지 직업 영향 자연스럽게 내 꿈 돼  
인천 토박이로 기업에 대한 호감도 ↑

### 후배들에 전하는 노하우?

나의 부족한 점 냉정하게 찾아 보완  
자기소개서에 자신만의 강점 녹여야

### 앞으로의 꿈과 계획은?

학창시절 배움+실무 경험 쌓고파  
개인 성장 통해 회사·사회에 도움

은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장그래가 프로 바둑기사가 되지 못한 자신에게 운이 없었다고 치부하기보다 ‘난 열심히 하지 않아서 버려진 것’이라며 현실 인식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보완해 나갔던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소영 사원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초점을 맞췄다. “아마 많은 구직자들이 자기소개서 준비를 가장 어렵게 느낄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자소서 쓰는 팁, 합격 자소서 등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차분히 자신을 돌아보고 나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찾는 것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강점을 정리하고 나면 그 어떤 어려운 질문이 담긴 자소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세내기의 회사생활도 궁금해진다. 선배들 앞에서 주눅이 든 모습일까? 회사에 대한 느낌은 어떤가.

박민수 사원은 잘 정돈된 느낌이었다고 말한다. “입사 전에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막연한 느낌이 었다면 직접 와서 보니 큰 규모의 공장이 대부분 자동화돼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선배님들을 뵈기가 힘들었고, 공장이 정말 깨끗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각의 위치에서 계속해서 노력하시는 선배님들 덕분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공장이 잘 운영되도록 돕는 것이 제가 회사에서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박소영 사원은 부담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입사 전에는 막연히 회사는 돈도 벌고 내가 성장하는 곳이라는 ‘나’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연수 과정과 회사의 선배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정말 당연한 성인으로서 프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회사를 바라보는 느낌도 달라졌습니다. 회사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 나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이기 때문에 프로로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SK인천석유화학’의 핵심으로 성장하게 될 이들 세내기의 꿈과 계획도 들어보자.

김현석 사원은 “학창시절 배운 통계학과 경제학, 회계지식을 활용하고 현업의 경험을 더해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조그마한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최인재 사원은 “기계엔지니어로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장을 보지 않고도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을 정도의 엔지니어가 되자는 목표로 열심히 근무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사원은 “화공엔지니어로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꿈”이라며 “그러다 보면 저뿐 아니라 많은 여자 후배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사원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 신입사원이 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통해 목표수 같이 팀원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는 신입사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 세내기 사원은 한목소리로 “입사 전에는 선망의 대상이 었지만 이제는 같이 성장하고 싶은 가족 같은 회사”라며 “개인의 성장을 통해 회사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환하게 웃었다.

한동식 기자 dshan@khihoibo.co.kr



### 엔지니어가 금년의 직업? ‘편견 벽’ 깰 수 있어 기뻐

#### 작업복 입고 현장 누비는 박소영 사원

산업 특성상 여성 엔지니어를 보기 쉽지 않은 정유 공장에서 작업복에 안전모를 쓰고 누구보다 멋지게 현장을 누빌 박소영 사원을 만났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나.

▶3월부터 생산기술팀에 배치됐다. 아직 담당 업무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생산기술팀은 생산성 향상과 안정 조업을 위한 기술 지원 업무를 한다. 어떤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빠르게 익히고 수행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 교육기간 동안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겠다.

—여성 엔지니어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화학공학을 전공했다. 화학공학의 꽃은 정유 및 석유화학산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부시절부터 화공엔지니어를 꿈꿨다.

대학에서 배운 전공과목들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설렌다.

—여성 엔지니어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여자라서 안 뽐을 것이다’라고 제멋대로 판단했던 적이 있다. 내 스스로도 여성이라는 벽에 가렸었다. 하지만 여자와 남자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을 갖고 준비해 나간다면 좋을 것 같다.

한동식 기자 dshan@khihoibo.co.kr



SK인천석유화학 전경.

'도내 우수 기초의원 선정' 영광의 얼굴들

이준영 부천시의원·김동희 위원장 예산절감 등 공로

부천시의회는 김동희 도시교통위원장과 이준영 의원이 '제5회 경기도시군의회 의정협의회 우수의원' 선정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31일 밝혔다.



이준영 의원



김동희 위원장

김동희 위원장은 의정활동 개선 분야에서, 이준영 의원은 예산절감 분야에서 그동안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이상춘 여주시의원, 신뢰·격려 통한 의정 활동 인정

여주시의회 이상춘 의원은 지난 29일 광명시 광명동굴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제5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의원은 주민에게 신뢰를 주는 의정활동을 통해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적극 노력해 왔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지적할 것은 과감하게 지적하는 한편, 잘된 점은 격려를 통해 올바른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19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여주시 수도권 제외 축구 결의안'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문제점에 대한 과감하고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그동안 여주시민이 고통받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여주=인기주 기자 ankiju@khihoilbo.co.kr

김용재 이천시의원, 낙후지역 활성화 정책집행 성과

이천시의회 김용재 의원이 제5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공약실천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제5·6대 시의회 재선 의원의 강점을 살려 본인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낙후된 이천시 남부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장호원 국민대아파트 사업 조속 집행을 건의했다.

특히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문제 해결 요구 등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29일 광명동굴 예술의전당에서 우수의원을 받았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hihoilbo.co.kr

이명희 포천시의원, 미래지향적 의정상 확립에 힘

포천시의회 이명희 의원이 지난 29일 광명동굴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협의회가 주관하는 '제5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에서 지역현안 해결 분야 수상자로 선정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빛냈다.



이 의원은 시민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온 공로와 미래지향적인 의정상 확립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게 됐다.

포천=박덕훈 기자 pdj3015@khihoilbo.co.kr

이중훈 가평군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분야 수상 영예

광명시 광명동굴 예술의전당에서 지난 29일 열린 제5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협의회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가평군의원 이중훈 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가평=염준기 기자 gsuim@khihoilbo.co.kr



광주 광남동 주민자치위, 전통 고추장 만들기 체험

광주시 광남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30일 광남동 주민센터 1층 주차장에서 주민자치위원, 지역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고추장 만들기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hihoilbo.co.kr

직접 만든 천연비누로 향기로운 나눔 선사

삼성전자 임직원 1000여 명, 퇴근 후 한달 간 제작활동 참여 화성·용인·평택·오산지역 복지시설에 보디클렌저 등 전달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봄철 행사를 대비해 사업장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시설에 임직원이 직접 제작한 천연비누와 보디클렌저 1만여 개를 선물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30일 기흥캠퍼스 스포렉스에서 '사랑의 비누 기증식'을 갖고 화성·용인·평택·오산 4개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관 2곳에 천연비누 1만 개와 보디클렌저 1천250개를 전달했다.

삼성전자 '천연화장품&비누등 연합회' 회원들과 임직원 봉사자들은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 3월 한 달간 천연세제 제작활동을 했으며, 참여한 임직원만 1천여 명에 이른다.

이번에 전달한 천연비누와 보디클렌저는 불철 불처각인 행사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환경도 보호하고자 코코넛·팜오일과 파프리카·오렌지에서 추출한 색소 등 천연재료를 이용해 제작했다. 이 제품들은 자연분해가 빠르고 피부 보습에도 효과가 있어 자극에 민감한 아이들과 노인들의 봄철 건강장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흥사에서 진행된 화성아동센터 연합회 회장은 "임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꼭 필요한 선물에 아이들이 대표해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h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hihoilbo.co.kr



나른한 점심시간, 아름다운 합창과 '휴식'

구리시 '점, 쉼 콘서트' 첫 공연 시립합창단 민요·가요무대 호응

구리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가 정한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 구리시립합창단 기획으로 지난 30일 구리아트홀 유채소극장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한 작은음악회 '점, 쉼 콘서트' 첫 공연을 개최했다.

봄기운이 완연한 날씨 속에 열린 공연에는 많은 공직자들과 시민들이 객석을 가득 채우며 모처럼 만에 찾아온 문화의 향연을 즐기면서 잠깐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공연에는 남녀 혼성으로 구성된 구리시립합창단이 조혜영 곡 못 잊어, 대중가수 이승환의 바람이 분다, 민요 뱃노래 등 7곡의 가곡과 민요, 대중가요를 아름다운



하모니로 편곡해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큰 호응 속에 30분의 짧은 추억을 선사했다.

런치타임을 이용한 작은음악회 '점, 쉼 콘서트'는 '문화가 있는 날'에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적 소풍

을 나누기 위해 시가 기획한 것으로,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다가갈 계획이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hihoilbo.co.kr

장애인 향한 배려, 오산 발전에 큰 힘

오산마을·우진·세교로타리클럽 등 지역 7개 로타리클럽은 지난 30일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오산지부에서 합동지구사업 보조금 전달식을 가졌다.

국제로타리 3750지구 우암 김석태 총재와 광상욱 시장, 문영근 시의회 의장, 로타리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조금 전달식에서 장애인복지회와 시각장애인연합회에 RV스포트지 차량과 음성컴퓨터를 전달해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광상욱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산지역 7개 로타리클럽이 건전한 봉사활동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오산 발전의 임무를 담당하는 봉사단체로 꾸준한 활동을 펼쳐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 지원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로타리클럽처럼 타 단체에서도 적극적인 동참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산지역 7개 로타리클럽은 생계형 근

매출·우진 등 7개 로타리클럽, 차량·음성 컴퓨터 후원 눈길

로자 안전조끼 지원, 회원 합동 헌혈 캠페인 및 헌혈,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hihoilbo.co.kr

부천오정폴 어머니·학부모폴리스 합동발대식 갖고 '학폭 근절' 다짐

부천오정경찰서는 31일 학교폭력 근절과 아동안전 강화를 위해 '2016년 어머니폴리스·학부모폴리스 합동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은 박동수 서장을 비롯해 부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 각 학교장 등과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정서는 이 자리에서 지난 1년간 어머니·학부모폴리스 회원들의 활동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고 한 해 활동 우수회원에 장려장, 신규 회장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어머니폴리스, 중학교 학부모폴리스는 등·하교시간 학교폭력 예방과 함께 아동안전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동수 서장은 "학교폭력 근절에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에 부응해 경찰도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건전한 학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일산복음의료재단, 창립 27주년 기념식 갖고 자축

고양지역 대표 의료기관인 일산복음의료재단이 창립 27주년을 맞았다.

31일 재단에 따르면 1989년 일산복음병원을 개원한 뒤 2015년 일산복음요양병원을 신축하면서 일산복음의료재단으로 성장세를 구가해 현재 500병상 규모, 18개 진료과, 6개 특수진료센터, 2대 특성화병원에서 전문의료진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재단은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건강증진센터 및 의료영상 저장 전송시스템(PACS), 처방 정보전달시스템(OCIS), EMR 등 최첨단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인공과관절 치환수술' 6년 연속 1등급에 선정된 가운데 통합의학적 암치료와 맞춤형 재활치료를 특성화시켜 운영하고 있다.

지난 30일 열린 창립 27주년 기념식에는 손재삼 이사장과 이덕창 병원장을 비롯해 최성혜 요양병원장, 최정환 행정원장 등 25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손 이사장은 "일산복음의료재단이 일산복음요양병원을 신축함으로써 제2의 도약으로 새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임직원이 각자 소임을 다하고 병원 발전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덕창 병원장은 "올해는 유난히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각자 맡은 곳에서 열심히 일해 준 여러분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손 이사장은 이날 일산복음의료재단 발전에 공로가 큰 임직원들에게 모범직원상을 수여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가평경찰서 생활연극 통한 교통사고 예방 홍보 호응

가평경찰서는 지난 30일 가평군 가평시장을 앞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주제로 생활연극과 만담을 통해 주민들에게 양방향 소통 치안정책을 홍보해 호응을 얻었다.

31일 가평경찰서와 '어설픈연극마을'에 따르면 교통경찰과 (새어설픈연극마을의 배우(가평주민)가 교통단속 과정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소재로 생활연극을 하고, (새어설픈연극마을을 이원승(연극인)상임이사는 만담과 토론을 진행하며 주민과 경찰의 입장을 서로 대화로 풀어가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몫했다.

이원승 상임이사는 "앞으로는 주민과 경찰의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며 역사사자의 입장에서 생활연극을 통해 가평경찰과 지역주민이 서로 소통하며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가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가평=염준기 기자 gsuim@khihoilbo.co.kr

# 지역 일자리 만들고 중기 살리는 '상생' 앞장

### 인하대 공동훈련센터, 직업능력교육원 등 파트너 기관과 협약 작년 산업 맞춤형 인력 227명 양성... 구인-구직 자생환경 조성

인하대학교(총장 최순자)는 31일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공동훈련센터와 파트너훈련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파트너훈련기관은 인천직업능력교육원,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현대CAD디자인직업전문학교, 올해 신규로 참여하는 인하공업전문대학 등 4개 기관이다.

인하대 미래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황재복 부장, 인천인적자원개발위를 비롯한 각 훈련기관의 대표자 및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인하대(공동훈련센터)는 파트너 기관과 함께 지난해 물류, 항만, 기계, MICE(관광) 분야에서 구직자를 대상으로 양성훈련을 실시해 227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줬다.

또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품질·원가, 설계, 물류·항만, 화학안전 등 교육 영역에서 7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인하대 김철수 평생교육원장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을 통한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 내 지식이 한자리의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자생적 진화의 참모습을 갖추는 것이 궁극적인 한 협력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hihoilbo.co.kr

## 본사소남

<경기본사>  
▶ 류호열 경기도 교육협력국장 인사차

## 인사

| 여주시 | ◇승진 <4급>▶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5급>  
▶ 의회사무과 전문의원 직무대리 이경호  
◇전보 <5급>▶ 산림공원과장 권혁민 ▶ 허가지원과장 권재운 ▶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 산북면장 방영철 ▶ 북내면장 한정남 ▶ 중앙동장 조경원(4월 1일자)

## 세일글

### "철저한 감사로 시민 신뢰를"



이미옥 인천시교육청 감사관

이미옥(57)인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1일자로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으로 부임했다.

이 감사관은 시교육청 정책담당서기관,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시교육청 복지재정과장, 인천교육지원센터장, 인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이 감사관은 "한 일에 대한 철저한 감사는 물론 해야 할 일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위해 소통에 충실한 감사에도 주력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인천시민이 인천시교육청을 신뢰하게 해 '맑음'이 있는 인천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유태 기자 cyt@khihoilbo.co.kr

### "소통행정으로 행복한 학교"



김상건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상건(57)인천시교육청 정보담당관이 1일자로 인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부임했다.

김 국장은 1983년 최초 임용과 함께 인천교육위원회 관리국에서 근무한 후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인천시교육청 총무과, 시교육청 정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김 국장은 "모두가 행복한 희망 북부교육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소통하며 북부교육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배움이 즐거운 교실,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현장중심의 청렴한 소통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유태 기자 cyt@khihoilbo.co.kr

### "인천교육 비전 널리 알릴 것"



박자흥 시교육청 홍보담당관

박자흥(55)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이 1일자로 인천시교육청 홍보담당관으로 발령됐다.

박 홍보담당관은 2003년 지방사무관 인일여고 행정실장으로 이어 시교육청 교육협력관·교육협력과장·학교설립기획과장,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 등을 두루 거쳤다.

박 홍보담당관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성과와 노력,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목표들을 시민과 교육가족들에게 널리 알리려 함께 인천교육의 더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유태 기자 cyt@khihoilbo.co.kr

## 글로벌 인재의 관문 인천으로 오세요

### 유타대 등 4개 대 내일 대구서 설명회 입학전형 안내·맞춤 컨설팅 제공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4개 대학이 2일 오후 대구경북디자인센터 8층 아트홀에서 '201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 4개 대학 대구지역 공동 입학설명회'를 연다.

이번 공동설명회는 한국뉴욕주립대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한국조지메이슨대가 참여한다.

이들 대학은 학교 및 학과 소개와 장학금 제도 등 입학전형을 안내한다. 또한 각 대학 입학처 관계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맞춤형 입학 컨설팅을 한다.

4개 대학의 학위 과정은 ▶ 겐트대 글로벌 캠퍼스=분자생명공학, 환경공학, 식품공



학과 학사과정 ▶ 유타대 아시아캠퍼스=커뮤니케이션, 심리학, 사회복지 학사과정 및 공중보건학과 석사과정 ▶ 한국뉴욕주립대=기술경영학, 경영학, 컴퓨터과학, 기계공학, 응용수학통계학 5개 학과 학사 및 대학원과정 ▶ 한국조지메이슨대=경영학, 회계학, 재무금융학, 경제학, 국제학 5개 학과 다. 공동설명회 신청은 인천글로벌캠퍼스(www.igc.or.kr)에서 할 수 있다. 인지동 기자 airin@khihoilbo.co.kr

## 경제 어려워도 나눔은 계속

### 이덕인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장, 1000만 원 후원

이덕인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장이 31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5회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정기총회'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특별회비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덕인 회장은 "인천경제가 침체돼 건설업계 상황이 좋지 못하지만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도움에는 함께하겠다"고 전달 소감을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2016년도 적십자회비를 4월 31일까지 모금하고 있으며, 납부한 가구주와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최만규 기자 cmg@khihoilbo.co.kr



## 건설한 환경보건인 양성에 한몫

인천재능대학교 환경보건과 동문회가 최근 모교 학생들을 위해 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후배들이 학과에 자긍심을 갖고 건설한 환경보건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환경보건과 동문회의 장학금 기부는 올해로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환경보건과는 매년 졸업 선배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홈커뮤니티'를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정호영 동문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물질상면으로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유태 기자 cyt@khihoilbo.co.kr

## 항공·물류 분야 미래위한 장학금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30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항공·물류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2016년 인천공항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행사는 정일영 사장과 임직원, 48명의 장학생이 참석했다. 공사는 이들 장학생에게 약 1억5천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번 장학생들은 인천공항·영종국제물류고·인천영종고·인천하늘고 등 지역 4개 고등학교와 항공·물류 분야 특성과 학과를 운영하는 한국항공대·한서대·인천대·인하대 등 4개 대학교에서 선발됐다. 공사는 2005년부터 항공·물류 분야 대학생 장학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다.

인재균 기자 ajk@khihoilbo.co.kr



## 인천본부세관, 불량식품 선제차단 '부정물질 연구회'

인천본부세관은 31일 식·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식품을 관세국경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부정물질 연구회'를 가졌다.

연구회에는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원대학교 등 유관기관 및 학술기관 관계자 43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최신 신종 부정물질의 정보 공유, 기관별 부정물질 분석 현황 사례 및 업무 협조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교환과 부정 물질의 사전 반입 차단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배종기 기자 jangib@



## 인천 중기협 이사장협의회 정기총회... 예산안 등 의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분부는 31일 '2016 인천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연수구의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총회에는 지역조합 이사장 25명이 참석해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또한 이번이 임기가 만료된 이승부 인천중기협이사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전임 이사장 5명에 대한 공로패가 전달됐다.

이재원 지역분부장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시장 개척 등 역점사업에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중국 기자 kjk@khihoilbo.co.kr



## 인천중구보건소, 무의도 경로당 돌며 건강관리 호응

인천중구보건소와 인천의료원 공공의료팀이 의료기관이 없는 무의도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시작한 '팔팔(88)하게 100세까지 무의도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31일 진행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중구보건소는 이날 무의도 모든 경로당을 순회하며 일반진료를 비롯해 혈압·혈당 측정과 건강상담, 심뇌혈관 건강강좌를 진행한 데 이어 4월 29일에는 일반진료와 체성분 측정, 금연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일 기자 kik@khihoilbo.co.kr



## 강화소방서-서울은평소방서, 우호교류 협력 강화

인천강화소방서는 31일 오전 11시 서울은평소방서와 도·농 간 동반성장 및 상호 우호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제살리기 119회망리레이를 통한 동반 성장과 의용소방대의 도·농 간 상호 문화 체험 및 실손 돕기 공동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강화소방서장, 강화의용소방대연합 남·여 회장과 서울은평소방서장, 은평의용소방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강화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약서를 교환했다.

류현형 강화소방서장은 "이번 MOU를 통해 도·농 간 상호 협력 및 우호교류가 이뤄져 안전·봉사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동반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화=김혁호 기자 kimho2@khihoilbo.co.kr

# 인천Utd, 잔물수비로 서울 원정 징크스 깬다

### 내일 '경인더비' 시즌 첫 승 각오



인천 유나이티드가 FC서울과의 '경인더비'에서 시즌 첫 승을 노린다. 인천은 2일 오후 4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3라운드를 치른다. 인천은 이번 원정경기를 기점으로 최근의 부진을 타개하고, 서울 원정 무승 징크스를 끊겠다는 각오다. 지난 시즌 인천 돌풍의 중심엔 단연

경기당 0점대 실점을 자랑하던 '잔물수비'가 있었다. 그러나 올 시즌에는 공격과 중원진이 변화가 큰 데다, 개막 후 두 경기에서 벌써 5실점했다. 특히 수비진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세트피스에서 연거푸 실점해 불안하다. 박대환·이윤표·요나치·권완규 등 수비진은 여전히 견제해 반전의 찬스도 남아 있다.

인천과 서울의 역대 전적을 살펴보면 7승14무15패(K리그만 포함)로 인천이 현재 절대 열세다. K리그 13년차 인천이 서울 원정에서 승리한 적은 단 두

번(2004년과 2013년)뿐이다. 인천이 최근에 서울 원정에서 승리한 경기는 2013년 3월 9일 K리그 클래식 2라운드(3-2 승) 맞대결이었다.

인천은 이번에는 꼭 징크스 탈피를 노린다는 각오다. 어제의 동지였던 김원식과 유현을 적으로 만나지만, 서울 역시 서울 출신 주장 김동석을 비롯해 이윤표·조수혁 등과 싸워야 한다. 이들 선수가 진정팀의 심장을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고 있는 만큼 흥미로운 경기가 될 전망이다.

최윤희 기자 cyt@khihoilbo.co.kr



## 본보-인천Utd 축구발전 상생협약 체결

본보와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상호 긴밀한 협조와 유대관계를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본보는 31일 인천구단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한창원(왼쪽) 사장과 인천구단 박영복(오른쪽) 대표이사, 정의석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유나이티드와 인천 축구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구단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 현수막 및 전광판, SNS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또 올 시즌 홈경기 중 '우리는 인천, 캠페인의 날'을 지정하는 프로모션도 계획하고 있다. 본보는 지면을 통해 이번 캠페인 안내 및 광고

활동, 인천구단 홈경기 알림 등을 추진한다. 박영복 대표이사는 "인천·경기 지역 대표 언론 기호일보와 인천 축구 발전을 위해 같이 힘을 쏟게 돼 너무도 큰 영광"이라며 "스포츠와 언론이 함께 축구 등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창원 사장은 "인천 유나이티드는 시민구단으로 그 어느 프로 스포츠보다 활성화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기호일보가 인천구단은 물론 인천 축구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화답했다. 최윤희 기자 cyt@khihoilbo.co.kr

## 제대로 미쳐야 야구다 SK 분장쇼! 댄스타임!

### 3일 미쳤Day 이벤트... 새 응원가도 공개



프로야구 SK 와이번스가 오는 3일 kt 위즈와의 홈경기 때 '미쳤Day' 행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SK는 지난 20일 원소 스포테인먼트의 귀환을 알리고 동시에 '제대로 미쳤다'를 스포테인먼트 슬로건으로 내걸고 팬들에게 파격과 울림을 통한 진짜 재미를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기 전 오전 11시 30분부터 3회초까지 1루 광장에서는 유명 인사를 모방한 '코스튬플레이어들과 포토타임', '크레이지 페이스페인팅' 행사 등이 열린다. '거리의 시인' 노현태 씨가 작곡하고 개그맨 유세운 씨가 직접 불러 화제를 모았던 새 응원가 '제대로 미쳤다'가 처음으로 팬들에게 공개된다.

경기 중에는 노현태 씨의 새 응원가 공연, 페이스페인팅을 한 팬들이 경기장을 투어하며 응원하는 '미친 분장쇼', 유명 인사 플레이쇼, 원대총각으로 잘 알려진 김광호 씨의 '크레이지 댄스타임', 응원단의 '물소 퍼포먼스' 등 팬들이 열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이어진다.

SK는 올 시즌 홈경기 수훈선수를 '크레이지 플레이어(Crazy Player)'로 선정해 경기 종료 후 1루 응원단상에서 시상식을 갖는데, 특별히 이날은 가장 열광적으로 경기를 즐긴 열혈팬 한 명을 선정해 직접 크레이지 플레이어에게 시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선수단 사인회는 2일(김강민·정의훈·이재원·이명기) 오후 3시 20분과 3일(투수 4명) 낮 12시에 각각 20분간 1루 광장에서 열린다. 최윤희 기자

## kt 위즈 '마법서 형상화'한 시즌 팬북 발간



프로야구 kt 위즈는 구단 상징인 '마법서' 느낌을 담은 2016시즌 팬북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옛 마법서를 형상화한 팬북은 2015년 첫 시즌을 보낸 구단의 발전과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선수단의 이야기를 담았다. 올 시즌 선수단 소개와 주요 선수 인터뷰, 전문가의 시즌 전망, 구단 캐릭터 상품 등으로 구성했다. 또 야구 카드를 무작위로 5장씩 담았다. 주요 선수 25명의 사진과 기록을 능력 수치로 표현한 야구카드는 팬들이 자유롭게 교환하며 수집할 수 있다. 구장 캐릭터 매장이나 온라인 숍(ktwizshop.smartro.co.kr)에서 1만5천 원에 구입 가능하며, 2016시즌 회원은 무료로 팬북을 받을 수 있다. 심연규 기자 sims@khihoilbo.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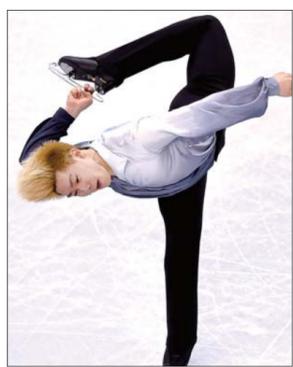
## 피겨 이준형, 자신을 제치고 세계선수권 프리 진출

### 쇼트프로 개인 최고점 갈아치워

한국 남자 피겨의 간판 이준형(단국대)이 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쇼트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최고점을 갈아치우며 프리스케이팅 출전권을 따냈다.

이준형은 31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TD가든에서 열린 대회 남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37.99점에 예술점수(PCS) 32.06점을 합쳐 70.05점으로 18위를 차지, 24위까지 주어지는 프리스케이팅 출전 자격을 얻었다.

이준형의 점수는 2014년 10월 2014-2015 ISU 주니어 그랑프리 7차 대회에서 작성한 자신의 ISU 공인 쇼트프로



쇼트 연기를 펼치고 있는 이준형. /연합뉴스

그럼 역대 최고점인 68.52점을 1.53점 끌어올린 신기록이다.

이날 첫 점프과제인 트리플 악셀(공중 3회전·기본점 8.50점)에서 수행점수(GEO)를 1.43점이나 얻은 이준형은 플라잉 카멜스핀과 체인지 풋 시스핀을 모두 최고난도인 레벨4로 처리했다.

이준형은 트리플 플립-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마지막 연결점프의 착지가 불안해 GOE를 1.40점 깎았지만 이어진 트리플 루프 점프를 안전하게 뛰어 점프 과제를 마무리했다.

스텝 시퀀스를 레벨3으로 처리한 이준형은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텝에서도 레벨4를 받으며 연기를 마쳤다.

이준형은 "프리스케이팅에서는 그동안 계속 연습해 온 쿼드러플(공중 4회전) 토루프 점프를 넣어 점수를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서이라라라~ 3관왕



서이라(노랑·화성시청)가 31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16-2017 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 둘째 날 남자부 1000m 예선에 출전해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쇼트트랙 국대 선발전 남자 1000m 정상... 랭킹포인트 34점 추가

서이라(화성시청)가 2016-2017시즌 빙상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다.

서이라는 31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1천m 결승에서 1분25초404로 박세영(화성

시청·1분25초508)과 임용진(경희대·1분25초595)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전날 남자 1천500m와 500m에서 각각 2분23초663과 41초322로 우승을 차지하며 랭킹포인트 64점을 획득한 서이라는 1천m 우승으로 랭킹인트 34점을

추가했다.

남자 3천m 슈퍼파인얼에서는 이호빈(화성시청)이 5분03초719로 이정수(고양시청·5분03초874)와 임효준(한국체대·5분03초949)을 따돌리고 1위로 골인했다. 서이라는 5분16초127로 8위에 머물러 4관왕 등극에는 실패했다. 심연규 기자 sims@khihoilbo.co.kr

## 오늘의 경기

◇1일(금) ▶프로야구=한화-LG(잠실) KIA-N(마산) kt-SK(문학) 롯데-넥센(고척) 두산-삼성(대구) 이상 오후 7시 ▶농구=협화정기 전국남녀중고대회(낮 12시·양문문화체육관) ▶요트=1차 국가대표 선발전(오후 1시·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 ▶양궁=국가대표 리커브 1차 평가전

및 캠퍼드 최종 2차 선발전(오후 2시·경북 예천) ▶핸드볼=SK핸드볼코리아리그 두산-신협상무(오후 5시) 충남체육회-SK호크스(오후 6시 30분) 이상 SK핸드볼경기장 ▶테니스=안동오픈(오전 9시·안동시민운동장 코트) 제주 국제 주니어선수권(오전 9시·제주 연정 테니스코트)

## 경기도체육회, 도비·기금사업 추진안 발표

경기도체육회가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시·군체육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통합 경기도체육회 사업 소개와 2016년도 달라진 운영 내용 등 시·군체육회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29일 경기도 꿈나무스포츠허교를 시작으로 대한체육회에서 교부되는 체육진흥기금까지 도비 3개, 기금 9개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운영했다. 올해 체육회 사업은 도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19개 시·군 140개 클럽의 사회배려계층이 참여하는 경기도 꿈나무스포츠허교와 도정사업으로 도내 대단위 아파트 12개소가 참여하는 주민공동체클럽 육성, 52개소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대한체육회 기금사업으로는 K스포츠클럽, 유아체육활동 지원, 시·군지회 운영 지원, 자원봉사단 운영, 생활체육안전교실, 노인시설 운동용품 지원, 생활체육광장 운영,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전통스포츠 보급 등을 선보여 스포츠 참여를 원하는 도민 결으로 깊숙이 다가갈 예정이다. 심연규 기자

## 경기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14곳 선정 발표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2016년 도내 복지관 대상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공모사업자로 수원시장애인복지관 등 14곳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수원시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 용인시 수지장애인복지관, 안산시장애인복지관,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안양시 관왕장애인종합복지관,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양평군장애인복지관, 수원시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고양시장애인복지관, 용인시 기흥장애인복지관,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안산시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등이다.

선정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사업은 여성·중증·신규장애인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하며 체육담당교사, 지역사회가 협력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심연규 기자 sims@khihoilbo.co.kr

# 계속 쉰 목소리에 코막힘·출혈... 진찰 받아야 겠어요



명·의·견·강·체·크 두경부암 바로알기

두경부란 머리와 목을 의미하지만 용어가 생소해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목과 가슴을 구분하는 쇄골 위쪽으로 중추신경계와 척추, 뇌를 제외한 모든 부위를 말하며 귀, 코, 얼굴, 구강, 목 등이다. 두경부암은 귀, 코, 얼굴 등 중요한 부위에 발생하는 암이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고, 증상이 있어도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 특히 진행된 암은 후두, 인두, 혀, 안면의 일부 등을 제거해야 하므로 환자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 된다. 두경부암으로는 후두암, 구강암 등이 있다. 발병률은 인구 1만 명당 1명 정도로, 국내에서만 매년 9천여 명의 두경부암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두경부암의 종류

▶후두암=후두는 목 중앙에 위치한 기관으로 호흡과 기도 보호, 발성 등을 담당한다. 후두암은 주로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 여성 흡연율이 높아지며 여성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쉰 목소리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목구멍에 이물감이 들거나 음식물을 삼키기 불편하면 전문 의에게 진단받는 것이 좋다.

▶구강암=혀와 잇몸, 입천장, 혀 밑 바닥 등 입안에 생기는 구강암은 흡연과 음주, 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이다. 흡연과 음주를 함께한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암 발생률이 약 15배나 높다. 불결한 구강위생, 의치나 치아에

### 새끼 상부 코·구강 등 발생

두경부암 조기 발견 힘들어

흡연·음주·바이러스 주원인

증상 의심 땀 CT·MRI 검사

병합 치료해야 큰 효과 얻어

의한 자극, 구강 점막화 섬유화증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최근에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인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한 구강암 발생이 늘고 있어 예방이 강조된다.

▶비인두암=비인두암은 코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부위에 생기는 암을 의



미한다. 보통 입을 벌릴 때 이물감과 통증을 호소하며 코막힘과 출혈도 있다. 비인두암이 유스타키오관을 막는 경우에는 중이염이 발생해 귀가 먹먹해질 수도 있다. 초기 증상으로 경부의 혹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갑자기 코막힘과 이물감이 코에서 느껴지고, 음식을 삼킬 때 코 쪽으로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비인두암을 의심해 봐야 한다.

### # 두경부암의 진단과 치료

두경부암이 의심되면 우선 CT, MRI 등의 검사를 시행한다. 조직검사에서 암으로 결과가 나오면 입원 하에 PET-CT, 경부초음파, 위내시경, 대장조영술, 복부초음파 등의 검사를 시행해 전신 전이 여부 및 다른 이상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현재까지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 요법이 있

으나 초기 암을 제외하고는 어느 한 가지의 단독 치료로는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대개 두 가지 이상의 병합 치료가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수술적 절제 후 제거되는 부위의 기능적 상실로 인해 호흡곤란, 발성 장애, 안면 결손 등이 발생해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에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등 수술의 한계점이 많았다. 그러

나 최근에는 재건성형 분야의 미세수술 기법 발달로 신체 다른 부위의 여러 조직을 수술로 제거된 부위에 이식함으로써 생리적·기능적·미용적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도움말=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홍현준 교수>



## 분분분 좋은데 자외선 후유증은 싫어요 두 가지 파장 레이저로 색소 병변 등 치료



메·디·컬·칼·럼

엑셀V 레이저 시술로 피부 고민 해결

기미·잡티·홍조 유발 시기, 여드워진 피부색 개선 효과

시술 10~20분 내외 소요... 곧바로 세안·화장 등 가능

따뜻한 봄이 다가오면서 봄나들이 계획을 세우는 나들이족이 늘고 있다. 그러나 깨끗한 피부미인을 꾸꾸고 있다면 불철 강해진 자외선을 주의해야 한다. 불철 자외선은 노화는 물론이고 기미·주근깨 등 잡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철 자외선은 피부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 기미·잡티와 더불어 피부 자극으로 인해 홍조도 동반되고 피부색까지 어둡게 만든다. 약해진 피부에 강한 자외선이

달으면 피부 아래에 잠자고 있던 기미와 주근깨·잡티가 올라오는 것은 물론 피부의 전체적인 노화도 앞당길 수 있다.

피부색소 질환은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자외선에 반복 노출될수록 더욱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 발생한 기미·잡티는 방치할수록 진행되고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 및 첨단 의

료기기를 통한 맞춤 치료를 권한다. 또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는 등 색소 질환이 유발되지 않도록 평소 습관을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생긴 다양한 색소 질환을 바로잡기 위해서 레이저 시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색소 병변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다양한 색소 병변과 모공의 탄력, 잔주름까지 치료할 수 있는 레이저 시술 피부과 전문의를 찾는 것이 좋다.



레이저 시술 피부과 전문의들은 기미, 여드름 흉터 등 색소점착과 안면홍조 등 혈관 문제, 잔주름 및 모공 탄력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기술과 경험에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색소 질환 치료 레이저들이 단일 파장으로 특정 질환만을 치료해야 했

다면, 첨단 의료기기를 통한 맞춤 치료법의 하나인 엑셀V 레이저 시술로는 532nm·1천64nm 두 가지 파장 레이저를 동시에 구현해 여러 가지 색소 병변을 한 번에 치료함으로써 비용과 시간도 줄이고 미백 기능을 더욱 상승시킨다.

넓은 모공·흉터·피부결·피부톤 개선

에 효과가 있는 '제네시스 모드', 표피 부근 혈관이나 색소 병변 개선에 효과가 있는 'KTP 레이저 모드', 피부 깊은 곳의 혈관 및 색소 병변 개선에 효과가 있는 '통펠스 ND-YAG 모드' 등 세 가지 모드의 파장을 번갈아 이용하는 엑셀V 레이저 시술은 여러 증상을 빠르게 호전시킨다. 또 FDA·KFDA·CE로부터 그 안전성을 인정받은 장비기도 하다. 시술에는 병변에 따라 10~2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며, 시술 후 바로 세안과 화장 등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엑셀V 레이저 시술의 장점이다.

2~3주 간격으로 3~5회 정도의 엑셀V 레이저 시술로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도움말=정강의료재단 JK위드미네AT의원 송도점 김경태 원장(피부과 전문의)>



본사 명예홍보이사  
탈렌트 이영후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남양주시청    의왕시청    용인시청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영등포경찰서

2014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주요실적

- SAMSUNG 삼성전지소재
- 인천광역시 인천소방안전학교
- 구리시청소년수련관
- 경인고등학교
- 송전중학교
- 용진부전산림조합

블로그 <http://blog.naver.com/waterproof01>    [www.IPALG.co.kr](http://www.IPALG.co.kr)

인천·부천 (032)471-6020	안양·안산 (031)422-1237	과천 (02)502-0494	안성 (031)676-2885	구리 (031)567-5576	동두천 (031)861-5576	광주 (031)767-0470
남수원·화성 (031)233-8061	고양·일산 (031)907-6029	광명 (02)2625-7904	의왕 (031)241-6921	포천 (031)531-5567	김포 (031)907-6029	군지암 (031)243-1728
북수원 (031)241-6920	의정부 (031)872-5576	성남 (031)733-4416	평택 (031)657-0423	양주 (031)842-5576	용인 (031)322-7751	가평 (033)243-1728
양평·용문 (031)771-7782	남양주 (031)594-4416	하남 (031)734-4417	오산 (031)372-0893	파주 (031)947-5576	이천 (031)636-7783	춘천 (033)241-8954

# 학교 비정규직 오늘 파업 일부 교내급식 차질일 듯

### 경기 교육공무직본부, 임금 인상 등 요구하며 교육감 상대 총파업 급식종사자 수만 15000여명... 도교육청, 학교별 적절한 대응 주문

경기도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4월 1일 파업을 예고해 일부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우려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차별과 고용 불안 현실을 외면하는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4월 1일 총파업 투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시 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경기교육공무직노동자 총파업투쟁대회’를 연다. 파업에는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3개 노조 가운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전체 학교 비정규직은 50여 개

직종에 3만5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영양사 1천345명, 조리사 1천821명, 조리실무사 1만2천535명 등 급식종사자가 1만5천여 명으로 가장 많다.

아직 파업에 참여할 급식종사자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2년 전 파업 상황에 비해 일부 학교의 급식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2014년 11월 20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 파업(229개교 1천81명 참가) 당시 93개 교가 급식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급식 종사자 중 파업 참가 인원을 고려해 학교별로 간헐식, 도시락 지참, 빵·음료나 외부 도시락 제공, 단축수업 등 적절하게 대

응해 달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행정실 무사를 비롯한 다른 직종의 파업 참가에 대응해 교직원 업무 조정 등으로 파업 영향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파업은 도교육청과의 임금교섭이 지난 11일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직종에 따라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급 3% 인상을 거부하고 명절휴가비 소급도 확답하지 않고 있다”며 “임금을 교육청이 인건비로 직접 지급하지 않고 각 학교 운영비에서 지급하게 해 비정규직을 학교운영비를 잡아먹는 괴물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명절휴가비 소급 지급, 교육청 임금 직접 지급, 정규직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정기 상여금 신설, 일방적 전보와 재배치에 따른 업무 과중 해소 대책 등을 요구했다.

심원규 기자 sims@khihoilbo.co.kr

## 임진강 준설 보도자료 조작 사건 파주시 공무원 기소의견 檢 송치

파주시의 임진강 준설 보도자료 조작과 관련, 경찰이 담당 공무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31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임진강 준설 관련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사진을 조작하고 서명부 인원을 부풀린 혐의로 당시 환경정책과장이던 A과장을 비롯해 환경기획팀장과 실무자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 모두에게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보다 앞서 올해 초 시에서는 “부실 보도자료를 작성·제공해 파주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정의 신뢰를 훼손시킨 사건”이라고 결론짓고 A과장을 대기발령했으나 최근 다시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29일 ‘문산을 주민 및 임진강 준설사업 추진위원회’ 명의로 임진강 준설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탄원서 연명부를 도의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민 7천 명이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의회 한길룡(파주4)의원과 강득구 의장, 오세영 도시환경위원장이 연명부를 받은 사진을 보도자료에 첨부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파주시 담당과장의 사진에 오세영 위원장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고, 서명부 인원도 300여 명에서 7천여 명으로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파주=김준구 기자 kimjk@khihoilbo.co.kr

### 쇼팽백 안에 숨진 갓난아기... 의정부역서 발견

의정부시의 한 전철역에서 갓난아기가 쇼팽백 안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30일 오후 8시 30분께 1호선 의정부역 서부광장 출입구 계단에서 쇼팽백 안에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31일 밝혔다. 숨진 영아는 퇴근 중이던 시민에게 발견됐으며, 생후 일주일이 채 안 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시신에 체온이 남아 있어 당시 영아가 살아있었거나 사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던 것 보고 있다. 쇼팽백은 버려진 지 20여 분 만에 발견됐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쇼팽백을 들고 역에 들어온 여성 한 명과 이 여성과 함께 역 안을 돌아다닌 또 다른 여성이 확인됐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 수원 야산서 자살 추정 백골시신... 경찰 수사

수원의 한 야산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낮 12시 30분께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뒤편 야산을 지나던 법원 직원이 백골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등산복을 입은 상태로 목 부위가 몸통과 분리돼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시신 발견 장소에 심어진 나무에서는 나일론 재질의 끈이 동그랗게 묶인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같은 점에 미뤄 시신의 주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할 계획”이라며 “시신은 백골화가 상당히 진행됐다. 이미 수년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건우 인턴기자 kkw@khihoilbo.co.kr

###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치기’ 보험금 상습사기 40대 구속

마주 오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수천 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31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나가는 차량에 접근해 차량 사이드미러(Side Mirror)에 고의로 손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A(45)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고양시 덕양구의 한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카니발 승용차에 접근해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적으로 손을 부딪쳐 B손해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는 등 총 15회에 걸쳐 2천 6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인들의 집을 전전하며 생활비와 유혹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후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을 건네받고 “괜찮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다음 날 보험 접수를 해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사고 현장에 곧바로 출동을 못하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김준구 기자 kimjk@khihoilbo.co.kr



위험천만 공사현장 평택시 죽백동 617-3번지 일대 H건설이 종교시설을 신축하면서 최근 개통된 2-5번 도로의 인도 100여m를 무단 점유, 건축 현장 사무실과 자재 창고용 컨테이너,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철근을 쌓아 놓는 등 불법행위로 인해 이곳을 지나는 행인과 차량들이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평택=김진태·홍정기 기자 jtk@khihoilbo.co.kr

## 흔타해지는 총선 열풍... 檢 선거사범 26건 입건

수원지검은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 관련 26건을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1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25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은 지난 1월 수원갑 예비후보자

등록한 A씨의 지지자 B(45)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알린 사건으로, B씨는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수사 중인 사건의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으로 고발당한 경우 등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 살포와 불법선거가 각각 4건과 3건이다.

다만, 현재 수사 건수는 제19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보다 5건 정도 줄어든 수준이다.

검찰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등으로 후보자 윤곽이 늦게 드러난 만큼 선거를 앞두고 남은 기간 흔타·과열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

로 보고 관련 정보 수집과 수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20대 총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안산지청 40건, 안양지청 22건, 성남지청 14건 등 모두 109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

전송표 기자 sp4356@khihoilbo.co.kr

### 오늘의 날씨

4월 1일(금)

해돋이 06:18 | 해넘이 01:43  
해뜨기 18:55 | 해지기 12:10

고양	양주	가평
4/24	2/23	1/24
김포	서울	의정부
6/21	8/23	4/23
인천	수원	남양주
8/19	6/23	4/24
		양평
		5/25
		이천
		4/25

### 춘곤증에 '꾸벅꾸벅'

맑고 평년기는 웃돌겠음. 아침 최저기온 1~8도, 낮 최고기온은 19~25도 분포.

바다날씨 (오전)	강수량 (%)
평형	0
시해	남-남서 4~9
남해	북-북동 6~9
동해	북동-동 5~9
인천	0
서울	0
수원	0
대전	0
대구	0
부산	0
제주	0

제작 KwWeather www.630.co.kr

## 퓨·리·피 여성전용패치

Menstrual Pain relieve p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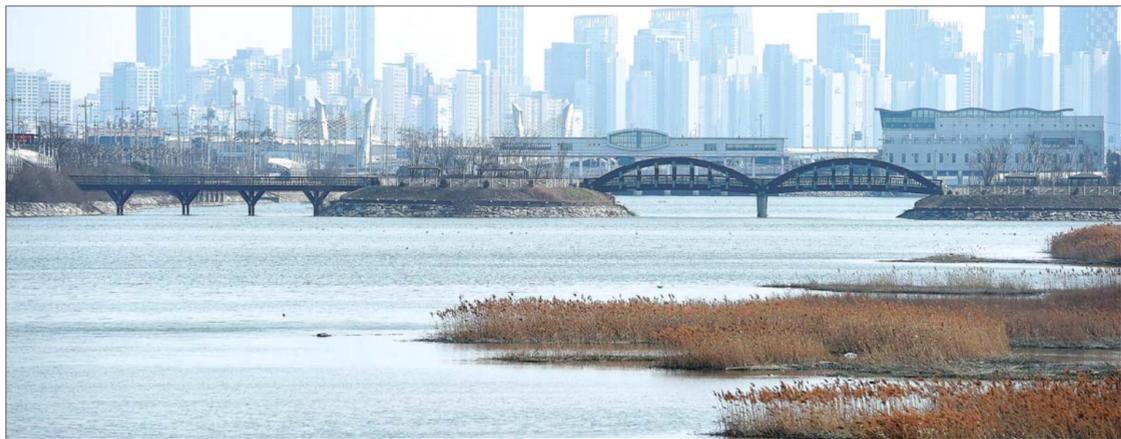
전국대리점모집  
www.puriffee.com  
상세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한달에 한번, 그 날이 행복해진다!

본 퓨리피 여성전용패치는 약제복용이 아니면서도 한국한의학연구원 발명특허 물질의 유효한방성분이 몸 깊숙이 침투되어 자궁 건강을 개선, 생리통에 좋으며 피부트러블 없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발명특허기술

**PURIFEE**  
02-2648-9778



인천시가 용현갯골수로 하부지역인 학익유수지를 매립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학익유수지.

최민규 기자 cmg@khihoilbo.co.kr

# 인천시 학익유수지 35만㎡ 매립결정 악취 해결 VS 돈벌이화 ‘논란 팽팽’

### 기본설계용역 바탕 대체유수지 마련 검토 사업 추진하면 2000억 원 이상 차이 생겨 친수공간 유수지 매립 비싼 여론 가능성도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과 맞물려 남구 용현갯골수로 아래쪽 학익유수지 35만여㎡를 매립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시는 대체유수지를 아암물류단지 위쪽 공유수면에 65만여㎡ 규모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학익유수지 6만2천803㎡(폭 35m, 길이 1.87km)를 남겨 두고 나머지 35만여㎡를 매립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학익유수지는 도시계획시설(유수지)로 인천시 소유다.

학익유수지가 퇴적물로 악취와 해충 등 주변 지역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다가, 유수지 양쪽이 개발됐거나 개발 중으로 이미 육지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아암물류단지 위쪽 공유수면에 대체유수지(면적 65만여㎡)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곳은 송도와 척전여촌계가 송도국제도시 매립



학익 및 대체유수지 위치도.

으로 여장이 사라지자 2006년 8월부터 2ha씩 한 정어업 면허를 얻어 조개를 캐던 공유수면이다.

시는 발주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기본설계 용역 과업에 수문 설치 등 대체유수지의 물순환체계 타당성과 100년 빈도 홍수위 산정을 통한 학익유수지의 적정 수로 폭 산정 등을 추가하도록 주문했다. 이 같은 추가 과업은 시 감사관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시는 기본설계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의 대체유수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

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공유수면으로 남아 있는 위쪽(5만3천400㎡) 매립을 통해 공공 및 유통시설단지를 조성키로 한 환경개선사업권자인 승주종합개발(주)의 동의를 받을 방침이다.

학익유수지 매립 총 공사비는 대략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시의 입장을 감안하면 민간업자에게 매립공사를 맡긴 뒤 공사비만큼 땅으로 주는 방식을 택할 공산이 크다.

학익유수지가 육지화할 경우 3.3㎡당 감정가를 300만 원만 잡아도 시는 2천억 원 이상을 남길 수 있다.

시는 자칫 친수공간인 유수지를 매립해 돈벌이에 나선다는 비판 여론에 맞닥뜨릴 수 있다.

시는 2007년 171억 원을 들여 학익유수지에 분수와 데크, 주차장 등 시민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여기에 특혜성으로 유수지 위쪽 지역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환경개선사업을 16년째 막아왔던 시<본보 3월 28일자 19면 보도>가 유수지 아래쪽 매립사업으로 특혜를 부추긴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정환 기자 hi21@khihoilbo.co.kr

## 금괴 등 바다에 투하·낙싯배로 수거... 기업형 밀수조직 23명 적발

인천본부세관은 금괴와 녹용, 담배, 비아그라 등을 밀수입한 기업형 밀수조직 23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날 주범 A(34)씨와 밀수행동책 B(39)씨, 수거총책 C(54)씨 등 3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세관은 금괴 인수책 D(53)씨 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며, 같은 혐의

로 밀수에 가담한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총 19회에 걸쳐 평택항과 중국 엔타이(烟台)항을 오가는 화객선이 시해안 풍도 앞 해상을 지나갈 때 페리 사무장인 E(57)씨의 묵인 하에 페리에 탑승해 밀수 조직원(투기조)이 금괴, 담배 등이 담긴

상자를 해상에 투기하고, 주변 A씨 등이 탑승한 고속보트 및 낙싯배를 이용해 수거하는 방법으로 밀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이들이 밀수한 금괴, 녹용 등은 시가 50억 원 상당에 달한다.

세관 관계자는 “주범 A씨가 밀수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으로 고속보트를 구입해 밀수행위에 다시 사용하는 등 수법이 매우 대담했다”고 전했다. 배종진 기자 jongjin@khihoilbo.co.kr

##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하투 예고’

### LH에 형틀목수 임금인상 등 요구

“2016년 전국 형틀목수 가능공 임금 18만5천 원 쟁취하자! 연차수당 분할지급제 시행하라!”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경인본부는 31일 남동구 논현동 LH 인천본부 앞에서 조합원 1천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임단협 출정식 및 경인지역 토목건축노동자 임금투쟁 승리 선포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하투’를 예고했다.

경인본부는 지난해 17만 원이던 형틀(골조)목수 일당을 18만5천 원

으로 인상하고 월 12일 이상 근무 시 연차 0.5일, 20~22일 근무 시 연차 1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분할지급제’의 정착 등을 LH에 요구하는 단체협약안을 전달했다.

김태완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국장은 “이미 광주·전남 토목건축(목수) 노동자들은 일당 18만5천 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전국 어디든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들이 보장받고 있는 연차와 연차수당이 목수노동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건설 현장에 정착되도록 최선

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현재 소속 근로자들은 50대 이상이 55.7%이며, 3~4인가족을 부양하는 가정이 64.3%에 이른다. 경력 20년 이상의 목수노동자들이지만 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 밖에 경인본부는 일명 ‘스메끼리’라고 불리는 임금 유보를 근절하고, 적어도 급여 지급 기준일로부터 15일 내 지급하는 내용도 단체협약안에 담았다.

이창호 기자 ych23@khihoilbo.co.kr

## 르포-인천 중앙시장 싱크홀 나흘째 난민신세 된 대피주민들 “늘그막에 여관방 신세 웬말이냐”

### 안전진단 완료까지 숙소생활 업체 선정도 안돼 불만 고조 주민들 인천시청서 기자회견 빠른 원인규명·공사중단 촉구

“늘그막에 여관방 신세라니, 복장 털릴 일이지.”

지난 28일 오후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로 인해 하루아침에 난민 신세가 정효심(66·여)씨 이야기다.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에서 불과 4~5m 떨어진 곳에 살던 정 씨는 안전진단이 끝날 때까지 건설사가 임시 숙소로 마련해 준 여관에서 생활해야 한다. 31일 현재 싱크홀 발생 사고로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정 씨 처럼 건설사가 마련해 준 임시 숙소에서 지내는 주민은 모두 13명에 달한다.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을 거야. 갑자기 땅이 꺼지고 ‘우당탕탕’하면서 집 안도 엉망이 됐는 걸.” 당뇨합병증으로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정 씨는 좁은 여관방에서 생활하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수시로 젊은 남녀가 드나들고, 옆방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까지 듣고 있자니 민망할 정도다.

또 다른 주민 김모(57)씨는 대학생 자녀를 데리고 이곳 여관



31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송천)터널이 지나는 동구 배다리마을과 솔빛주공·누리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28일 발생한 싱크홀 원인 규명과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최민규 기자 cmg@khihoilbo.co.kr

방에서 지낸다. “갈아입을 옷도 없고 세탁도 못해 불편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다 큰 자녀와 함께 한 방에서 생활해야 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여관 인근 한 식당에 모여 늦은 아침을 먹었다. 건설사가 지정한 업체에 입맛도 없다며 식사 도중 숟가락을 놓고 나가는 주민도 한둘이 아니다.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는 정선화(54·여)씨는 “싱크홀 때문에 놀란 것도 있지만, 여관 생활이 영 불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인지 소화불량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싱크홀이 발생한 주변 건축물

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끝날 때까지 이들은 임시 숙소에서 생활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안전진단 업체도 선정되지 않아 집에 다시 돌아갈 날은 기약이 없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시공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이득 지역구 후보들을 상대로 더 이상 불편을 감내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주민과 인근 배다리, 솔빛주공·누리아파트 주민들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싱크홀 발생에 따른 정확한 원인 규명과 안전진단을 조속히 실시하고,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터널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승훈 인터넷기자 hun@khihoilbo.co.kr

## (유)와이즈에너지월드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확실하고 안정된 소득! 노후를 준비하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 근거한 태양광 RPS발전사업은 건물 위, 대지에 자신에 자금규모에 적절한 금액을 투자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후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 발전소에 판매하는 안정된 사업입니다.

■주택용 태양광발전 설치하면 전기요금 부담 해결됩니다.

• 누진세로 전기요금이 걱정되는 주택 • 공동주택의 공동전기요금 절약 • 신축주택의 태양광설치로 가치상승

태양광발전설비 · 전기공사 · 수요자원등록 전문

태양광발전사업 문의 ☎1566-1336

# 제4회 수원화성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2016. 4. 23(토) 11:00-17:00 장안공원

**주 제** \_ 현장 공지

**참가부문** \_ 그 림 : 유치부 · 초등부 · 중등부 · 고등부  
글짓기 : 초등부 · 중등부 · 고등부 · 학부모

**시 상** \_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경기도지사상 · 경기도의회의장상  
경기도교육감상 · 수원시장상 ·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상  
수원시의회의장상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상 · 경기대학교총장상  
기호일보사장상

**제 공** \_ 원고지, 도화지(※미술도구 개별지참)

**접 수** \_ 2016. 4. 22(금)까지 ※학교별 단체접수 / 대회 당일 현장접수 가능

**문 의** \_ 기호일보사 사업국(TEL.032-761-0007 / FAX.032-761-0015)

**부대행사** \_ 가족참여형 레크리에이션(경품증정) / 헬륨풍선 증정 / 전통놀이체험  
페이스페인팅 / 키다리빠어로

※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 경품추첨



주최·주관 | 기호일보

문의 | 기호일보 사업국 032-761-0001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경기도 | 경기도의회 | 수원시 | 수원시의회 | 수원교육지원청 | 경기대학교